(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90−991　1982년 11월26일(금) & 27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 Saturday, November 26 & 27, 1982

한국일보 토론토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NOV 26 1982

양로원건립 일원화 요망

주택공사서 한인케이스 특별회의

3개 단체가 각자 신청…공염불 가능성도

토론토한인사회에서 3개의 단체가 양로원건립을 추진, 각자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으려 하고 있으나 연방예산 삭감전망등으로 한인사회 양로원건립은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24일 연방정부 소속 중앙 모기지및 주택공사(CMHC : Central Mortgage & Housing Corporation)의 데브라·라이트(Debra Wright)여사에 의하면 토론토지역의 양로원관계 예산은 84년도분까지 이미 배정됐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을 통보받지 못한 신청건은 84년이후에나 자금배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연방정부의 적자예산 관계상 양로원건립비 지원예산이 86년도부터는 크게 삭감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양로원보다는 일반 가족용주택(Family Housing)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

주택공사의 특별주택과(Social Housing)는 25일 하오 한인 양로원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특별회의까지 가졌다. 회의가 끝난뒤 담당 직원들은 한인사회에서 교민들의 의사가 통합되고 단일 양로원건립의 필요성이 증명되면 한인프로젝트는 빠른 시일내에 허가될 수도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한인인구가 적기때문에 양로원이 1개이상 허가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교포사회에서는 갈보리장로교회(건립위원장 김대억)가 작년 6월에, 동부한인장로교회는 금년 7월에, 각각 양로원건립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들보다 범교민적으로 조직된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The Korean Senior Citizen's Home Development Society: 회장 천중환)는 26일부터 소정의 실태조사서를 교민사회에 돌리기 시작했다.

한인양로원은 작년에는 동양화 판매, 금년에는 워커톤으로 약3만달러의 운영자금을 모금했다.

한인양로원측주장은 (1)80년10월 구성되어 범교민적으로 건립운동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별도로 건립을 추진해 온 것은 납득이 안간다.

(2)한인양로원의 재산권은 교회가 아닌 한인사회 전체에 귀속돼야한다.

(3)양로원안에 교회를 지어 자기 소유화하는 것은 양로원을 교회건축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토론토시내 40여개교회가 모두 그런식으로 양로원을 짓겠다는 사태가 나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는 점등이다.

"특히 갈보리교회는 23만달러를 모금, 8에이커의 땅을 확보했다지만 애초 교회건축을 위해 모금한 것이며 정부가양로원건립을 전적으로 지원함을 알고 이중목적을 위해 계획을 변경했다. 또한 최근 정부로부터 이미 1천만달러를 받은양 선전하는 것은 기만적이다"고 비난했다.

주택공사는 비영리양로원(노인을 위한 호스텔및 시니어·시티즌스·홈: 너싱홈이 아님)건립을 위해 최고 1천만달러를 연리 2%로 융자해 주며 필요성 조사, 법인체등록, 계획서 작성등 준비단계를 위해서도 7만5천달러까지 빌려준다.

양로원신청서가 최종 승인이 나려면 도합 11개 정부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선청순서에 따라 심사하지 않고 필요성을 검토, 순위를 정한다.

제일먼저 신청서를 내고 실태조사서를 돌린 갈보리교회측은 1)교회가 신청했으나 전 한인사회를 위한 양로원이다. 2)실제운영도 한인사회 전체의 '참여로 이뤄진다. 3)연방예산이 끊어지는 마당에서 누구든지 먼저 신청해 놓고 힘을 합해야지 이제와서 신청기관이 변경, 다시 대기자명단(웨이팅·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돈 받기가 어렵게 된다. 4)한인양로원위원회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단독으로 일을 시작했다. 5)양로원위원회는 애초에 양로원이 아닌 양로병원(너싱홈: Nursing Home)건립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는 다른 양로원(병자가 아닌 노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곳)건립을 추진했고 또 서로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그간 통합을 위한 타협에 실패했다.

토론토지역에서만도 25일 현재 48개의 신청서가 주택공사에 접수돼있다.

갈보리측이나 한인양로원측 모두 실태조사결과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얼마규모의 건물을 짓는다는 명확한 계획은 없다.

갈보리측은 대체로 4백세대(웃닛), 약6백명수용을 가정했다.

코리안·크리스챤·콤뮤니티재단(Incorporated)이라는 이름을 내건 동부한인장로교회도 최근 설문지를 돌렸다.

"내년 실직률 계속 높아"

민간단체의 내년도 경제전망

(오타와) 캐나다는 내년도에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실질적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지만 높은 실업률로 인한 타격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캐나다경제협의회(Conference Board of Canada)가 전망했다.

경제전망을 분석하는 민간회사인 경제협의회는 24일 보고서를 통해 83년도에 세계 경제가 캐나다의 수출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에 충분할 만큼 복구될 것인지 여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곧 24개회원국에 보낼 보고서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율을 겨우 1.3%일 것으로 전망했음이 캐나다 정부관리들에 확인됐었다.

캐나다경제협의회의 내년도 경제전망은 다음과 같다.

▲뉴·펀들랜드에서는 약 5명당 1명꼴이 실직상태에 있을 것이다.

▲퀘벡, 뉴·브룬스윅, 프린스, 에드워드·아일랜드의 실업률은 15%~16%가 될 것이다.

▲온타리오 근로자의 실업률은 11%이상으로 81년도의 약2배가 될 것이다.

▲브리티쉬·컬럼비아와 노바·스코시아의 14%정도가 될 것이다.

▲작년에 3.8%라는 낮은 실직률을 보인 알버타주는 내년도에 9%이상의 실직률을 보일 것이다.

▲늘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유지해오던 사스카추완까지 내년에는 6.7%의 실직률을 기록할 것이다.

◆ 칼가리에서는 24일 날씨가 영하20도로 급강하하자 짧은펜티를 입은 한 아가씨가 추위를 이기기 위해 역기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오늘의 예금금리(11/18부터)

한인신용조합

기간	신용조합	[illegible]	시중은행
30일	10.5%		9.5%
90일	11%		10%
180일	11%	10.75%	10%
365일	11%	10.75%	1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illegible] 한인신용조합 Tel : 533 9387~8

난민학살사건 관련

베긴 기소될지도

(예루살렘-외신) 지난9월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있은 팔레스타니안에 대한 대규모 학살사건의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의 베긴수상과 8명의 고위관리들에게 조사결과 이들을 직무태만죄로 기소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3명의 이스라엘인으로 구성된 학살사건조사위원회에 경고를 받은 8명의 고위관리는 샤론국방장관, 샤미러외무장관, 정보책임자 2명, 군장성 3명과 샤론국방장관의 보좌관1명이 포함된다.

학살조사위원회는 이들 9명의 행동이 "직무불성실에 해당"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학살조사위원회의 이같은 발표는 이스라엘의 최고위 민간및 군부층이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은 레바논의 기독교동지들이 팔레스타인난민수용소로 진격해 들어가도록 허용했을때 민간인의 대학살을 예견하지 못했거나 대학살이 시작되었을때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의혹의 표시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베긴수상의 보좌관은 베긴수상이 학살조사위원회의 이같은 발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말했다.

제9회 아시안게임

한국, 금7, 은9로 3위달려

(뉴델리 24일=한국신문공동취재반) 23일 현재 19일 개막된 제9회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금7, 은9, 동4로 중공, 일본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23일 열린 사격 소구경스탠다드 부문에서 윤덕하(28)선수는 571발을 명중(600발 만점) 두번째 금메달을 차지했다.

윤선수는 22일 소구경 3자세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하나 금메달은 여자테니스 단체전에서 중공을 3:0으로 누름으로써 차지했다.

한국여자테니스는 74년 테헤란게임에서도 이덕희·양정순이 활약, 금메달을 딴바 있다.

이날의 은메달은 사격 소구경스탠다드 단체전(2,251점)과, 골프단체전이었다.

나라	금	은	동
중공	21	20	12
일본	18	13	13
한국	7	9	8
북한	4	9	8
인도	4	4	2
필리핀	1	1	3
인도네시아	1	1	2
몽고	1	1	0
이란	1	0	1
이락	0	0	1
싱가폴	0	0	1

<새 연재>

"성교육, 모두 말합시다"

자유 분방한 구미사회에 살면서 "성개방"풍조에 젖기 쉬운 현대살이에 성을 무조건 「금기」로 "쉬쉬"할 것이 아니라, 우리자녀에게 건전한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바른 인식과, 탈선예방에 도움되고자 본국의 자매지〈일간스포츠〉제공으로 "성교육 모두 말합시다"를 오늘부터 연재합니다.

본 연재가 우리2세들의 장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편집국)

은하 보석
다이아몬드·순금
관칩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토론토발행인 : 명규
편집인 :
인쇄인 :
광고국장 :

SUNLIFE
백용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 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S.T.S Motors
자랑스런 차
각종 VOLVO (스웨덴)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웬건등
판매·LEASING·써비스·부속파트·타이어·페인트
S.T.S.MOTORS
전화 : 751−7664
2116 LAWRENCE AVE. E. (로렌스×EAST OF WARDEN)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북한, LA올림픽참가 채비

소수 선수단규모…미국내 훈련장소 물색

84년LA올림픽대회에 북한측은 소수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고 LAOOC(LA올림픽조직위원회)관계자가 23일 밝혔다. 북한측은 이에앞서 내년1월 LA다운타운 빌트모어호텔에서 개최되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총회에도 대표단을 파견할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마이클·오하라LAOOC(LA올림픽조직위원회)부위원장은 『북한대표단이 LA올림픽참가준비로 1월IOC총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북한은 올림픽게임의 TV중계도 교섭중이다』라고 말했다.

LAOOC의 대회안전경비를 책임맡고있는 에드·베스트 안전위원회위원장도 23일『선수단보호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북한선수단이 참가하드라도 경호에는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남·북한관계상 매우 데리케이트한 상황이 될것으로 추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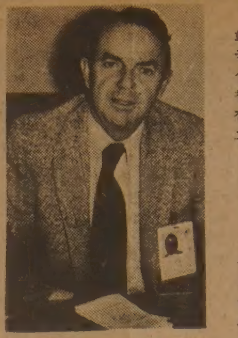
LAOOC의 한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북한측은 현재 IOC측을 통해 LA올림픽대회사항을 수집하고 있으며 미국내 전지훈련장소도 물색중이다』라고 말했다.

미국무성한국과의 북한담당관바바라허브는 『북한선수단이 전지훈련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면 케이스별로 심사하게된다』고 밝히면서 『1978년에 개정된 외국인비자발급규정에서 북한과 베트남, 캄보디아등은 따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한팀의 단일팀구성문제에 대하여 LAOOC마이클·오하라부위원장은 『단일팀문제는 당사국의 사항이고 LA조직위가 관장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대회주최가 IOC이기때문에 남·북한과 IOC가 협의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은 이미 세계축구연맹(FIFA)에 대하여 LA올림픽대회예선에 출전하겠다고 공식통보해 올림픽출전의 뜻을 밝혔었다.

북한은 72년 제20회 「뮨헨」올림픽대회에 처녀출전했고 76년 캐나다「몬트리얼」올림픽에도 참가했으나 결거에는 출전치 않았다.



▲마이클·오하라 LAOOC부위원장은 올림픽참가준비로 북한측이 내년 1월 LA에서 열리는 IOC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LA지사)

ABC TV「20/20」프로'

「이철수사건」기획 방영

곧 촬영착수… 후원회와 협의

미전국 네트워크인 ABC-TV는 이철수씨사건을 기획방영하기위해 12월중순부터 촬영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방송의 인기프로인 「20/20」에 방영될 이철수씨 사건 자료를 위해 현재 뉴욕ABC-TV 스튜디오에서는 샌프란시스코지역의 이철수후원회와 협의하고있다.

이프로는 내년 1월중순에 방영될 예정이다.

ABC-TV의 「20/20」프로는 CBS-TV의 「60분」과 함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있다.

ABC-TV의 이번 이철수사건프로그램에는 9년간의 무고한 옥중생활과 제1사전무죄 그리고 제2사전개요와 후원회활동을 비롯 관계자들의 증언이 수록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재건이철수후원회장은 『미국의 큰TV방송국이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면서 『이철수씨의 정의로 향한 투쟁의 한표상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캐네디부부 곧 이혼수속

〈보스턴 〉 약2년간 부인 조앤과 별거해온 에드워드·케네디연방상원의원이 곧 이혼하게 될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헤럴드지는 22일 가십난에서 케네디부부의 양쪽변호사들이 지난3개월동안 4백만달러의 합의금에 관한 세부사항을 준비해왔다고 보도했다.

조앤여사를 대표할 변호사는 그녀의 동서였던 재클린·케네디·오나시스의 뉴욕변호사 인것으로 전해졌다.

조앤여사는 지난80년 케네디의원의 실패한 민주당대통령후보지명전캠페인기간동안 케네디의원곁에 자주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전부터 별거중이었으며 이미 서로 다른 사람과 사귀고있었다고 알려졌다.

보스턴에 살고있는 조앤여사는 보스턴병원의 제리·아로노프박사와 나란히 사교석상에 참가하는것이 눈에 띄고있다.

공룡화석발견

60~70톤 크기

(부산 24일=연합) 1억3천만년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화석이 24일 부산 서북쪽 약100km지점에서 발견됐다.

김항문교수가 이끄는 부산대학교 지질조사팀은 브로치오·사우리달(Brochio Sauridal)족에 속하는 이파충류의 뒷두개골일부와 갈비뼈등을 경남 합천부근의 한 야산에서 발굴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이공룡은 중생대의 백악기(Cretaceous Period)에 살았으며 크기는 높이 15m와 길이 25m에 무게는 60~70톤으로 추정된다.

김교수는 73년부터 지금까지 공룡의 잔해는 한반도에서 4차례나 발견되었으나 공룡의 두개골이 한반도에서 발굴되기는 처음이라면서 공룡화석의 빈번한 발견은 중생대에 한반도에 공룡이 번성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토론토전지역 전기료 7% 인상

온타리오하이드로는 토론토지역의 전기료를 7% 인상한다.

이에 따라 한달에 470킬로와트를 쓰는 가정의 경우 약 $1.42가 오르게 된다.

범죄예방 민간조직

가디언·에인절 12월에 활동개시

붉은 베레모를 쓴 수호천사, 즉 가디언·엔젤(Guardian Angel)단원들의 모습이 머지않아 메트로·토론토의 거리에서 익숙해질 것 같다.

이들은 범죄방지를 위해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은 24일 시험적으로 토론토의 번화가를 순찰했다.

이 조직의 리더인 리사·술리사씨(35)는 이날 특수훈련을 받은 35명의 민간인들이 한달내에 거리를 순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들은 모두 2개월반의 무술훈련과 기타 범죄방지에 따른 제반훈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노스욕에 사는 크리스·마트린(21)군은 가디언·에인절의 멤버가 된 이유를 묻자 "곤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위해서라고 답변했다.

◆24일 시험적으로 다운·타운 토론토거리를 돌고 있는 가디언·앤젤의 리더 리사·술리사양(왼쪽). 붉은 베레모를 쓰고 다닐 이들의 본격활동은 12월에 시작된다.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17>

29분의 1 ㉒

馬형사는 겁에질린 옥자를 달래며…

『범인이 빨리 잡히리라고 기대했던 우리가 어리석었지.』

김반장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인은 아무말 없이 밖으로 나왔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막 지나고 있었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이옥자를 만나러갔다.

이옥자가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집은 찾기가 쉬웠다. 주위에서 눈에 띌 정도로 집이 커서 금방 알 수가 있었다.

집에는 모두 외출하고 나이 많은 할머니와 옥자만이 있었다. 경찰에서 왔다고 하자 옥자는 까무러칠듯이 놀란 얼굴이 되었다. 못생긴 얼굴이었지만 그런대로 귀염성이 있어 보였다.

『자, 놀라지 말고 우리 이야기를 하자고. 어디서 이야기 할까.』

『전 나갈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지.』

옥자는 와들와들 떨면서 집안으로 그를 안내했다.

『누구왔냐?』

노파가 안방쪽에서 골골골 기침을 하면서 물었다.

『동회에서 왔다고 그래.』

옥자는 마인이 시키는대로 안방에다 대고 동회에서 왔다고 말했다. 노파는 잠잠해졌다.

『할머니는 기동을 못하세요.』

안심하고 말하라는듯 그녀가 덧붙여 말했다. 마인은 끄덕였다. 그들은 마루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차 한잔…』

그녀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으면서도 예의를 지키려고 애를쓰고있었다. 마인은 손을 내저었다.

『아, 괜찮아요. 그보다는 내가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해요. 그리고 무서워 할 필요는 조금도없어요. 옥자에 관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해서니까 아는대로 대답하기만 하면 돼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그녀는 거친 두손을 모두어 쥐고 그를 힐끗 바라보았다.

『주인이네 집에 있을때 말인데 …그 집에서 왜 나왔지?』

『주인 아주머니가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유.』

『그전부터 나가라고 했나?』

『아니요. 오래오래 같이 있자고 했는디…갑자기 가라고 해서…』

『왜 갑자기 나가라고 했을까? 옥자는 착하고 일도 잘하고 했는데 왜 나가라고 했을까?』

그녀는 모르겠다는듯 살레살레 머리를 저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나가라고 했다 이말이지?』

그녀는 끄덕였다.

『그거 이상한데. 그 집에는 얼마나 있었지?』

『2년 있었어요.』

문득 그녀의 눈에 눈물이 핑돌았다.

『이상하지 않나? 2년동안이나 잘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다니 정말 이상한데… 혹시 옥자가 봐서는 안되는 걸 본거 아니야?』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그를 쳐다보았다.

朴男 그림

도덕관념과 합법성

문우일(매니토바대학교 교수)

◆문우일 박사

얼마전 미국의 수도 워싱톤에 볼일이 있어서 잔일이 있었다. 워싱톤시의 동남부에 있는 내쇼날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공항에서 보면 동북쪽에 있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연구실로 가자고 운전수에게 일렀다. 수학자가 볼때는 출발점과 도착지사이에 직선을 그어서 그것을 따라가면 시원할 것이다. 우리의 상식으로 만약에 직선 여행을 할 수 없으면 북쪽으로가다 동쪽으로 가던지 아니면 동쪽으로가다 북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일로 안다. 그런데 이 택시운전수는 포토막강다리를 건느지 않고 계속 서쪽으로 갔다. 워싱톤이 처음이 아니어서 대강의 길은 알기에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걱정하지 말고 있으면 목적지에 데려다 줄터이니 가만이 있으라고 하고 계속 서쪽으로 갔다. 어이가 없었으나 욱신각신 하면서 벨트웨이를 뻥돌아서 목적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결국 경찰을 불러서 이 택시운전수를 처벌하기를 요청했다. 경찰얘기가 미주(워싱톤시)의 법에 의하면 손님이 택시에 탔다내리면 요금을 택시계기에 나온대로 내어야 하고 안내면 경찰의 의무는 돈안내는 손님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는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운전수가 짧은 거리를 택하지 않고 워싱톤시의 주변을 뻥돌아서 온데 대해서는 그 택시회사를 정식으로 소송해야 하는수 밖에 없다고 했다. 감옥에갈 협박을 경찰한테서 받고 택시운전수에게 사기당한 줄 알면서도 정상요금의 몇배되는 택시요금을 내고 그 하루종일 몹시도 불쾌한 날을 보냈다. 이 택시운전수는 분명히 도덕에 어긋나고, 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을, 외국에서 장시 여행온 사람에게 법의 약점을 알고서, 사기행각한 것이다. 그가 소속된 택시회사를 법정에 소송하면 일년이상 걸릴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그 운전수는 안 것이다.

위에 쓴 한 불쾌한 경험담은 아주 미미한 예로, 민주주의국가, 자유로운나라, 자본주의국가에서는 허다하고, 어떻게보면 당연히 있어야 할 일들중의 하나다.

이런일이 한국에서 일어났고 코크고 눈파란 서양사람이 경찰에 보고를 했으면 그 택시운전수는 당장 감옥에 잡혔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한가지 질문해볼 문제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하면 이런 불쾌한 경험을 덜 할수있는지? 아니면 이런일을 당하고도 마음이 편하게 사는법을 배워야 할른지? 아니면 우리가 할아버지같이 여기는 대국의 수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우리도 이것을 잘 배워서 우리는 우리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용내지 법적으로 사기를 쳐야 할른지? 하는 문제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정치인 권리에 그 발판을 둔 점이다.

더우기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계캐나다인들이 "약한자의 종교", 다른 어느 종교에 비해서도 더욱 제국주의적인, 기독교에 이성을 잃으면서까지 몰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택시경험"이 있은날 세계에서도 저명있는 워싱톤포스트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됐다. 일본에서는 공학사(엔진이어) 졸업자가 1,000명이면 법대졸업자는 그의 십분의 일인 100명밖에 안된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1,000명의 공학사가 졸업할때 법대출신 변호사는 그 10배인 10,000명이며 현재 일본전체의 변호사수는 40,000명인데 비해 미국의 변호사수는 480,000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변호사수가 많으니 미국의 사회는 더 공정하고 범죄가 적어야 할런지? 오히려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 많은 변호사들이 합법적인 한도내에서 어떻게 하면, 비록 비도덕적일지라도 더 개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데 몰두하는것 같은 인상을 받었다.

북미사회는 군주론에 발판둔데 비해

교민사회는 기독교에 몰두됨이 문제

인들, 지도자들, 법률가들이 성경처럼 모시는 책중에 하나가 니콜로·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다. 이책을 대강만 훑어보아도 위에쓴 경험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있을 일로 간주할 수 있다. "군주론"을 읽어보면 저자 마키아벨리가 진짜 악마같은 인상은 전혀없다. 단지 문예부흥 당시 이태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의 미국과 흡사한 점들이 많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했다. 그런 사회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기독교적인 도덕관만으로는 안되고 이를 대치할 어떤 룰들이 필요했고, 군주론은 16세기초의 이태리사회에서의 생존경쟁을 이기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들을 요약해 놓은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서양사회지도층에서는 이책이 기독교의 도덕적관점을 가로채 버렸고, 심지어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몇백년후 기독교를 "약한자의 종교"로 간주해 버리도록 한 것이다. 더우기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것은 이 사회의 저류가 지난 450년간이나 이런 합법적이지만 비도덕적인 풍조에 휩쓸려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 개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하면 이런 사회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살수있는지? 아니면 어떻게하면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도 평안한 마음으로 살수있는지? 아니면 한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합법적이지만, 어쩌면 비도덕적일지도 모르는 방법으로 개인소득을 볼 가능성이 있을지를 탐구해 볼 일 일것같기도 하다.

The fact is that a man who wants to act virtuously on every way necessarily comes to grief among so many who are not virtu ous.

——Niccolo Machiavelli

밍크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밍크 ●폭스 ●세블 ●라쿤
록키모피 MR. 정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중앙고등학교

망년 파티

저물어 가는 한해를 되새기며 [redacted] 같이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부동반하시어 즐거운 한때를 갖이시길 바랍니다.

ㅁ일 시: 1982년12월10일(금) 오후7시
ㅁ장 소: 크링톤하우스 (CLINTON HOUSE) 693 BLOOR ST. W.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경품 추첨도 있읍니다.

중앙고등학교
회장 윤 택순

담임목사 부임 환영예배

김택규목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하오며,

금번 저희 교회에서는 김택규목사님을 청빙하여 본 교회를 아껴주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부임 환영예배를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982년 12월12일(일요일) 낮12시30분
장소: 353 SHERBOURNE ST. TORONTO

중앙한인연합교회 당회원일동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 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모국 수학생모집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

서울대학교 재외국민 교육원은 '83학년도 재외한국인 모국 수학생을 모집한다.

국내의 공등학교,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고자 하는 재외한국인으로서 거주지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국수학생 응모자격은 다음과 같다.

과 정	교육기간	모집인원	응모자격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	4월1일－12월15일	약간명 (국비장학생 10명포함)	재외국민으로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자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대학(대학원) 예비교육과정	4월1일－12월15일	180명 (국비장학생 50명포함)	재외국민으로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자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단기교육과정	(전기) 4월1일－6월30일 (후기) 9월1일－11월30일	전기 30명 후기 30명	재외국민으로서 중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을 갖인 자.

부산대교수 공모

박사학위자 우대

국립부산대학교가 83학년도 교수를 공모하고 있다.

82년12월15일이 응모기한이며 응모자격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박사학위소지자는 우대한다.

채용분야는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공대, 법대, 사대, 상대, 약대, 의대, 치대, 가정대, 예술대등이다.

부산대는 해외귀국자로서 무주택인 경우에는 아파트제공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83년8월까지 귀국할 수 있는 자도 응모할 수 있다고 한다.

응모서류제출및 문의는 607 부산시 동래구 부산대학교 교무처이다.

서울대교수요원 모집

박사학위 대상, 84명규모

서울대학교가 해외 또는 국내대학출업자를 대상으로 총84명내외의 교수요원을 공개채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로서 교육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를 응모자격으로 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요원 모집으로 서류제출마감은 82년11월30일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연구실적 목록, 연구실적물(박사학위논문등) 학력및 성적증명서, 추천서등이 다. 서류제출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이다.

채용학과는 다음과 같다.

중문학, 영문학, 서양사, 고미술사, 외교학, 사회학, 수학, 계산통계학, 물리학, 식물학, 동물학, 미생물학, 기상학, 지질과학, 해양학,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경영학, 건축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섬유공학, 무기재료공학, 원자핵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자계산기공학, 토목공학, 항공공학, 화학공학, 농화학, 임학, 동양화, 산업미술, 사법학, 공법학, 교육학, 영어교육, 사회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약학, 제약학, 작곡, 기악, 의학, 간호학, 치의학, 보건학, 행정학등이다.

문의처는 토론토 총영사관 혹은 서울대학교 교무과(전화: 877-0101 교환3202)이다.

金選手사건 후유증 WBA에 비난높아

◉…김득구선수사건은 미국매스컴에서 이례적으로 크게 다루었는데 이 가운데서도 LA의 헤럴드익재미너지는 『김득구 사망을 계기로 권투경기를 불법화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 22일에는 독자들에 대해 『권투경기 불법화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의 여론조사까지 실시.

23일자에는 독자투고란에서 김득구사건을 또 취급했는데 독자들의 의견도 찬반이 팽팽히 대립. 닥김슨이라는 미국인은 투고에서 『김득구사건은 권투경기 자체에 잘못이 있는것이 아니라 WBA(세계권투연맹)의 농간때문이었다. 82년 링·레코드·북의 톱랭킹 20명 명단에도 오르지않은 김득구를 어떻게 챔피언(맨시니)과 대전시킬수 있었는가. 이는 김득구가 2만달러밖에 요구하지않았기때문이다』라면서 WBA부터 수술해야된다고 맹비난.

그런가하면 폴라크메일러라는 미국인은 『권투를 불법화시켜야한다. 우리가 투우, 개싸움, 닭싸움을 미국에서 불법화한것은 그 잔인성때문이다. 』라며 헤럴드 익재미너' 태도를 지지.

◆금붕어 같죠?―배우 존·배리모어의 손녀 드루·배리모어양(7)이 뉴욕에서 「새터데이나잇라이브」 프로그램리허설도중 입을 오므려 금붕어모양을 해보이고 있다. 드루양은 이 프로그램사상 최연소의 호스트로 출연한다.〈뉴욕―AP〉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서부지점 ☎ : 243-9544
해밀톤지점 ☎ : 1-385-1485

이민의 문화적 · 사회적 자아를 밝혀가는 한국일보 533-2361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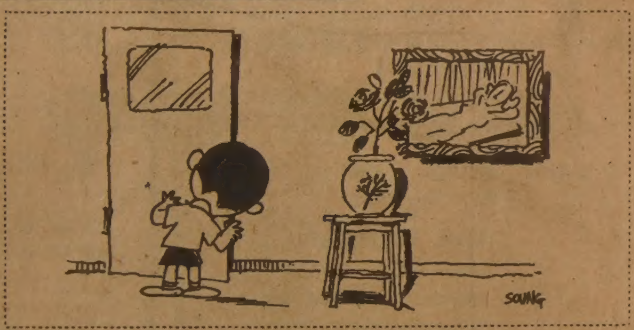
한국비데오센타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품질보장 · 신용본위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性敎育 모두 말합시다 ①

父母와 子女가 함께읽는 시리즈

「性」에 관한 얘기를하기가 수월해졌다. 과거의 우리나라 남성들의 상대는 직업적인 여성들이었다. 일반 양가집여성들이 쏟아져 세상에 나오게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男과女는 性의 실상을모른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모르기 때문에 청소년들사이에 저질러지는 性의문제점을 파헤치고 그 대책을 일러 주고자 한다.

◇金貞泰박사



女體에 호기심많은 10代… 요령껏 보여주자

환자는 누이의 히프를 만져보았다는 10대 청년의 직언이 있는가하면, 누이들이 옷을 갈아 입을때면 14세된 남동생이 으레 문구멍으로 들여다 보고있다고 호소하는 처녀가 있다.

거북할 뿐아니라 혹 동생의 이런 행동은 「이상」 발달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누이들의 얘기다.

실상 평범한 여자는 남자의 육체를 보고 욕구를 느끼든나 또는 호기심을 가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키가 크다거가 용모가 잘생겼다는 등의 현상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남자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라 사춘기 이후에는 능동적인 성욕구를 갖게 되므로, 女體라는 것에 크게흥미를 갖는것은 당연한 얘기라 할수 있다.

남자의 성에 관한 지식중에서 가장 모르고있는 부분이 女子들의 월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때, 남자들의 女體에대한 호기심은 비슷한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女體에 대한 관심은 때로 사진이나 그림으로 대신 만족을 할 수도 있으나 가능하다면 당연히실제의 女體를 보고자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두 요소들은 별로 변태적이라고 할수는 없고 있을수도 있는 일이긴 하다.

대개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숨겨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욕구들이 異常이 아니라고 할수 있는것은 이들이 장성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女體를 대할수 있게 되면 이런 현상들은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로 알수있다.

물론 그중 극히 소수의남자들(대체로 특히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격의 남자들) 에게서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대체로는 10대를 넘기면 적당한 기회를 가질수 있고, 기회를 가졌을 경우 그 호기심은 급격히 감퇴될수 있는것이 사실인것이다.

성교육 부재라고 하는 현실로 미루어 이러한'현상들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과민하게 주시 (注視)를 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런 한 기회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할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일부러 동생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으나 기왕에 엿보고있는 사실이 있다면 정도것 마음놓고 볼수있도록 불을 켜놓은채로 옷을 벗는다 (뒤를 보이는 편이 무난할 것임) 든가, 문을 살짝열어놓는다든가 하는등 조금은 대담한 태도로 동생의 교육을 돕는다는 경우도 있을수있다.

이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발달이 되지 않도록 유도할수 있는 방법이 될수도 있다. 어느 20대초반의 청년은 오히려 누이들이 지나치게 노출을 하고있어 질렸다고 호소를 하며 女子에게 혐오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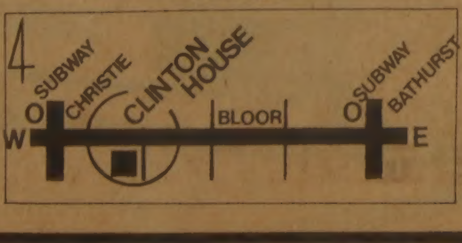
어떤 현상이든지간에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다가도 그 상황이 계속되면 흥미를 잃게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것이다.

이런점에서 남녀간의 사랑에있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는것은 또 그만큼 싫증을 쉽게 느끼게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어야 할것이다.

金 貞 泰
(醫博·한국人口보건연구원)

봄·여름·가을 그리고 겨울
크링루 BLOOR 에서 만납시다!!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파티 예약접수중
CLINTON HOUSE
693 BLOOR ST. W.
535·9541

ㅁ150명 수용의 메인홀
ㅁ25명～50명 수용의 연예홀
ㅁ각종파티, 동창회
ㅁ각종모임, 계



"래디드개스를 언래디드로 판다"

환경성관리 일부 주유소 적발

일부 주유소에서 납함유율이 높은 래디드 휘발유를 납성분이 들지 않은 언래디드 개스(Unleaded Gas)라고 속여 팔고 있음이 드러났다.

25일자 토론토·스타지는 캐나다 환경성관리의 말을 인용, 남부 온타리오의 주유소를 조사해 본 결과 주유소중 6%~7%가 납함유율이 높은 개솔린을 언래디드·개솔린으로 속여 팔고 있다고 보도했다.

래디드보다 리터당 약2.5센트씩(갤론당 거의 12센트씩) 비싼 언래디드·개솔린만을 사용하도록 된 차 엔진에 래디드·개솔린이 들어갈 경우 엔진밸브가 망가지는등 차에 무리가 간다. 환경성산하의 토론토 공해통제담당관인 존 맥도날드씨는 주유소가 래디드를 언래디드로 파는 일은 주로 부주의로 인한 것이지만 일부 "고의적"인 주유소도 있다고 말했다.

연방 환경성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언래디드의 납함유량은 갤론당 0.06그램이나 조사결과 심한 경우 갤론당 1.5그램까지 함유한 주유소도 있었다고.

레귤러 래디드·개솔린은 갤론당 3.5그램의 납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어머니성 따를 수 없다"

「온」주대법원 독신녀에 판시

(오타와) 자기 아들에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던 어머니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에드몬톤에 사는 신시아·칼라드씨는 3년전 자기 아들의 탄생직후부터 아들이 자기의 성을 부칠 수있도록 온타리오 인구통계등록처에 신청했었다.

그녀의 아들 제임즈군은 칼라드여사가 남편과 별거한 지 2년뒤인 1979년에 태어났다. 제임즈의 아버지는 별거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

칼라드여사는 등록처로부터 제임즈의 성은 그의 아버지나, 그녀의 남편, 혹은 이 두 이름중의 하나와 칼라드여사 자신의 병합한 것 이라야만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칼라드여사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 별거남편 혹은 아이의 아버지등 어떤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않고 자신이 키워왔기 때문에 아들에게 자신의 성을 달게 하고 싶다고 법정에 호소했었다.

그러나 24일 온타리오주 대법원의 J.M.오슬러박사는 온타리오주의 인구통계법에 어린이가 어머니의 성을 달수는 없도록 돼 있으므로 현재의 사회적모랄이 어떤 경향을 띠고 있건 간에 법원이 이 문제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17세모델의자태 방년17세의 영국모델 리자·밀러양의 모습. 영국 서튼·콜드필드의 시골마을출신인 밀러양은 원래 수퍼어디스지망생이었으나 모델수업을 마친이제 모델로서 大成할 계획이라고. 【東京=AP】

미끈한몸매 과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줄리·엔더슨양(20)이 최근 英國뉴캐슬의 노트·엔드에서 열린 한 미인선발대회에서 미끈한 몸매를 과시하고있다. 【노트엔드=AP】

교민동정

◆이광민(상업미술가)= 극단 "얼"의 창단공연을 앞두고 주역 맹진사역을 맡아 바쁜중 경사를 맞았다.

세째처남 정태조군이 박영철부총영사의 조카딸 임경희양과 오는 11일 12시, 한인교회(Jane×Hwy401)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신랑 정군은 작년에 이민와, 지금은 대학진학을 위해 준비중이다.

제일식품개업파티 26일 하오6~8시

지난 24일자(수) 광고중 제일식품 개업파티 일자는 26일(금) 하오6시~8시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生즙 成人病 예방한다

▲야채나 과일로 생즙을 만들어 마시면 여성의 피부미용, 어린이 지능발달및 스태미너강화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각종 성인병의 위협을 받고있는 현대인들사이에 야채·과일을 혼합, 즙을내서 마시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야채·과일의 생즙은 비타민C·칼슘·미네럴등 각종 영양소를 고루 함유하고 있어 질병치료와 예방은 물론, 어린이의 지능발달, 여성의 피부미용, 스태미너의 강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식요법이 인체에 이롭다는 기록은 많지만 과학적인 체계가 잡히기는 20세기초반.

모든 병의 70%는 체액의 산성화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산중독이 계속되면 뇌병·고혈압·동맥경화증·신장병등이 일어난다고 했다.

생즙은 알칼리성이며 풍부한 무기질이 함유되어 체액의 산성화를 막고 알칼리화를 조절하는 효능도 지닌다.

생즙은 식전1~2시간전 공복에 한컵씩 마시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 의사들의 권고다.

간암으로 2개월 시한부인생을 선고받았다가 소생한 어떤사람은 각종 서적과 경험을 토대로 당근·시금치·셀러리·사과를 혼합한 즙이 가장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는 특히 야채즙에 설탕을 섞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당근에다 오이나 호박등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것은 함께 섞지 말아야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야채나 과일류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등을 쓰지않은 천연적인 것이 좋다.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라도 염화칼리희석액에 10~20분간 담갔다가 깨끗한 물로 씻어내면 별 지장이 없다고 한다.

가정에서 간단히 만들어 마실수 있는 녹즙을 소개한다.

◆변비: 과일즙 100g·시금치즙 100g씩을 1일 3회복용.

◆소화기 질환: 당근즙 300g·시금치즙 200g·오이즙 50g을 1일 2회복용.

◆가래가 끓을때: 신선한 레먼즙을 껍질채 짠것 한컵과 무우즙 100g을 1일 3회정도 복용.

◆간장질환: 당근즙 200g·과일, 시금치즙 각 100g을 1일 2~3회복용.

◆심장병: 당근즙 300g과 시금치·셀러리즙중 어느 한가지를 100g씩 1일 2~3회복용.

◆동맥경화증: 셀러리 200g·상치, 당근, 시금치등 100g을 1일 3회복용.

◆당뇨병: 과일 300g·아스파라거스·상치·당근즙을 100g을 1일 3회복용.

◆빈혈증: 당근 300g·시금치 200g·셀러리 100g을 1일 3회복용.

〈독자의 광장〉

어떤 눈물

김 성 헌 (토론토 거주)

어느 토요일 오후, 다운타운에 나가 아이들에게 약속했던 영화를 보여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키플링 서브웨이 터미날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옆에는 20대 중반의 여인이 역시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서있었다. 큰 애는 기껏해야 10살이나 되었을성 싶고, 작은 애는 7, 8세 정도 되었을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인형처럼 앙징맞게 예쁜 계집아이들이었다.

쇼핑을 다녀오는 것일까? 두 아이는각각 품에 예쁜 테디·베어(Teddy Bear) 인형을 안고 있었고, 또 다른 손에는 무언가 담긴 이튼백화점 백을 들고 있었다.

얼마를 서있으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졌다. 두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서있는 여인도 말이 없었지만 한참 신이 나 재잘거릴만한 아이들도 무언가 무거운 표정으로 가만히 여인에게 기대 서있기만 한다.

왜 그럴까?

"제길, 걱정도 팔자라더니, 참 나도 어지간히 앞자락이 넓군. 남이야 무슨 표정을 하고 섰든 염려할게 뭐람"

자신에게 핀잔을 맞으며 눈을 다른데로 돌린다.

얼마 있다가 버스가 터미날에 들어왔다. 손님들이 다 내리기를 기다려 가운데 문으로 올랐다.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바로 창밖에 예의 그여인과 아이들이 보였다. 여인이 두 아이들을 하나씩 껴안고 키스를 하더니 아이들만 버스에 올려보내는 것 아닌가? 나의 궁금증은 다시 안달하기 시작한다.

두 아이는 몇번이고 뒤돌아보며 버스에 오르더니 바로 내 앞자리에 안고 있던 물건들을 내려놓고 둘다 창으로 얼굴을 내밀고 여인을 본다.

"마미! 다음 토요일 또 만날 수 있어?"

울먹이는 소리로 작은 아이가 묻는다.

"그럼, 마미가 전화할께. Lisa! 걱정하지 마."

한참동안 시선을 서로 떼지 않는 그들에게서 나는 나의 그이상했던 예감이 적중했음을 알았다.

운전수가 차에 오르고, 버스가 천천히 터미날을 벗어난다. 손을 흔들고 섰는 여인이 멀어져 가고, 두 아이는 그녀를 향해 "Bye, Mom!" 소리쳤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이들은 목을 느리고 뒷창 쪽으로 그녀를 좇는다.

어느 사이에 두 아이의 길다란 속눈썹 사이로 송송 눈물이 솟았다. 큰 애가 작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자리에 앉는다. 콧날이 시큰해진다. 그리고 무언가 뜨거운 뭉치가 목을 타고 가슴으로 흘러드는 것같다.

합리주의와 개인의 권익과 자유를 지상으로 여기는 서구의 사고방식이 낳은 결과가 "인생은 나의 삶을 사는 것. 마음에 맞지않는 불행한 결혼을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구질구질 유지해 갈 필요가 없다. 과감히 헤어지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라면 비록 우리의 것이 너무 정에 끌려 공사의 구분을 흐리게 하고,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위가 혼란을 거듭하게 했다는 지탄을 받는 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그래도 내 삶을 희생해 가면서도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그 끈끈한 정과 인고의 아름다움 마저 외면되어 질 수는 없는 것이다.

"행복이란 사랑의 구속을 잉태한 자유에서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서구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익, 그리고 동양적인 인정의 구속과 희생은 행복의 다른 두개의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의 양면인 것이다.

우리가 내려야할 곳에서 일어나 문께로 가면서 두 아이를 내려다 보았다. 눈물젖은 속눈썹을 포개고 눈을 감은채 둘은 서로 머리를 기대고 앉아있다.

"윙" 버스가 앞질러 달린다. 멀어지는 버스를 바라보며 나는 나의 딸들 진·선·미의 손을 꼭 쥐어준다.

이화여고 크리스마스및 망년파티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에도 크리스마스및 망년파티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 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2월11일(토) 오후6시
장 소 : Triumph Sheraton (HWY401×Keele) 빅토리 Room)
회 비 : 부부45불
연락처 : Mrs.김 1—895—7594
Mrs.진 533—0190

이화여고동창회

창립 8 주년기념 예배안내

본 교회 창립8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기념예배를 드리고저 하오니 부디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때 : 1982년12월11일(토) 오후6시
곳 : 본 교회(3819 Bloor St. W.)
*예배후 간단한 만찬회 있겠음.
교통안내 : 키플링 지하철종점에서 먼다스 동쪽 한블럭 북쪽에 건물이 보임. 당일 본 교회안내 차량이 종점 택시승차장에서 대기합니다.
문의연락 : 621—6340

토론토 대한교회
KOREAN CHURCH OF TORONTO
교우 일동

교육전도사 청빙

본교회 2세들의 종교언어및 정서교육담당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1통 사진 1매
□자 격 : 신학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한국 또는 북미주)
□기 간 : 82년12월25일까지
□연락처 : ☎ 221—1382 ☎ 496—2967

THE KOREAN BETHEL CHURCH
395 OLD YONGE ST.
WILLOWDALE ONT.
M2P 1R6
벧엘교회
당회장 목사 최상봉

숙명여고 동창 망년회

숙녀회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이 해가 간다합니다. 반가운 숙녀회 식구끼리 아쉬움을 풀고자 아래와 같이 자리를 마련하오니, 부디오셔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때 : 1982년12월11일(토) 오후6시
곳 : 김봉진회장댁 4172 TRAPPER CRES. MISSI, (전화 : 820—0483) (W. Erin mills PKY×North of Burnhamthorpe)
준 비 : 본회에서 저녁과 음료일체를 준비합니다.
후원비 : $20
문의처 : 회장 김봉진(Mrs. Lee) 820—0483
총무 이난희(Mrs. Kim) 530—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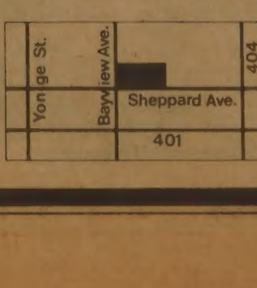
*아직 동창회 명단에 오르시지 못하셨거나 주소가 변경되신분은 연락바랍니다.

숙명여고 토론토동창회

SONY 비디오
X-MAS
특별가격안내
$795
SL—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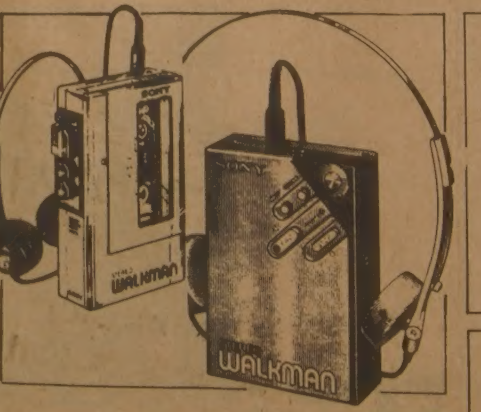
금번 SONY 회사에서는 닥아오는 X-MAS및 연말, 연시 선물품목으로 세계적인 인기리에 판매중인 SONY BETAMAX비데오를 파격적인 최저가격으로 봉사합니다.

BAYVIEW ELECTRONICS
2901 Bayview Avenue, Willowdale, Ont.
Bayview Village Shopping Centre.
Tel: 224-1622
대표 김항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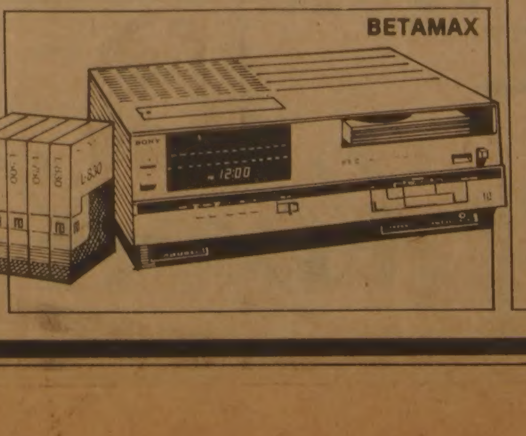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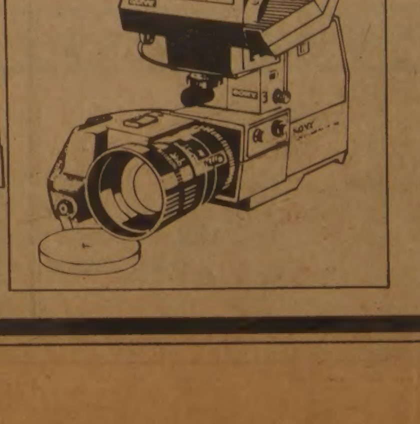
취급품목
Stereo
Television
Video

Sony
Luxman
Pioneer
Sansui
Toshiba
J.V.C.
Panasonic
Sanyo
A.K.G.



BETAMAX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日「교과서歪曲」조치 오늘발표
어제 駐韓公使통해 通報

近隣 국가관계 신중配慮
검정基準 12월부터 적용

고또오·도시오(後藤利雄)駐韓日本공사는 23일하오 외무부를 방문, 오가와·헤이지(小川平二) 文部相이 24일 日本역사교과서歪曲문제에 관해 발표할 「所見」 내용을 崔東鎭亞洲국장에게 사전 통보했다. 이날 고또오 공사가 통보한 「所見」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난 16일 文部省 자문기관인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가 文部省에 答申한 「近隣 諸國과의 관계배려를 검정기준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따라 왜곡시정을 위한 앞으로의 日本정부 조치를 담은것으로 알려졌다. 日本文部省자문기관인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는 지난16일 答申에서 『近·現代史에서의 대개의 事象은 역사적평가가 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 그 記述에는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며 더구나 한국과 中國등 近隣아시아제국에 대한 記述에는 과거의 불행한 관계를 거울삼아 근린제국과의 국민감정을 배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答申은 또 文部省이 마련할 새로운 검정기준은 오는 12월에 시작되는 금년도 교과서 검정부터 적용토록 건의하고 말썽이 됐던 81년도 검정완료 高校교과서는 당초예정보다 검정시기를 1년 앞당겨 83년도에 검정을 실시토록 할것등을 내용으로 담고있다. 日本문부성은 24일 오가와 文部相이 조사심의회의 答申을 토대로 정부의 방침을 밝히는 所見을 발표하며 이내용을 文部廣報에 게재, 전국 일선교사들에게 문부성의 방침을 시달할것으로 알려졌다.

稅額공제 절충계속
稅法小委 勤所稅20~40만원은 20%접근

국회財務委稅法심사小委는 23일하오 소득세법, 법인세법, 附價稅法개정안에 대한심의를 계속했으나 與野간의 의견이 엇갈려 늦게까지 절충을 계속하고있다. 民韓黨은 이날 소득세법중 高소득층에 대한 累進단계를 늘려 6천만원까지 50%로돼있는 정부案대신 6천만원~8천만원까지 55%, 8천만원~1억원까지는 60%의 세율을 적용, 누진단계를 16개단계(정부안14단계)로 늘릴것을 주장했다. 稅額공제부문에 있어 民韓黨은 30만원이하에대해서는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대신 30만원~40만원까지의 근로소득자는 20%로하되 사업소득자는 5%로, 그리고 40만원~5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자 10%, 사업소득자 5%를 주장,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알려졌다. 民韓黨은 또 근로소득공제한도액을 현행88만원 이하를 94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육비공제도 月70만원 이하근로자에 限하던것을 모든근로자에게 확대할것을 주장한편 1인당 12만원의 교육비공제액을 20만원까지 늘릴것을 주장했다. 民韓黨은 특히 人的공제액중 기초공제부분을 月1만원이상 上向조정할것을 주장했으나 民正黨은 기초공제액 1만원인상은 7백20억원의 稅收減과 직결되기때문에 받아들일수없으며 대신근로소득공제한도액과 교육비 공제폭의 확대에 있어 民韓黨의 주장을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늦추을비친것으로알려졌다.

民正, 修正案제출
實名制 86년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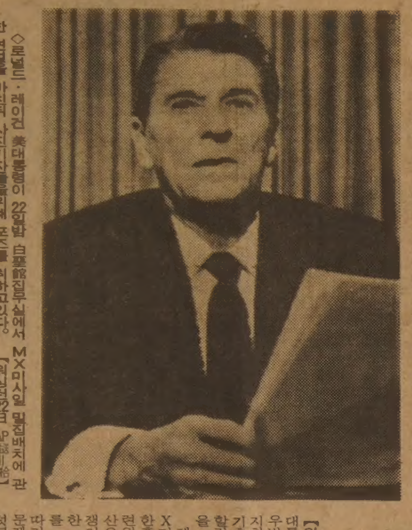
民正黨은 23일 금융實名去來制를 오는 86년1월1일이후부터 실시하되 실시시기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것을 주요골자로하는 「금융實名거래법안修正案」을 鄭順德의원외 1백49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民韓도 全黨大會 늦추기로

民正黨이 全黨대회연기방침을 세운것과함께 民韓黨도 내년1월에 열기로된 定期全黨大會를 다소늦춰 召集할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로널드·레이건 美대통령이 22일밤 白堊館집무실에서 MX미사일 밀집배치에 관한 연설을 마친뒤 사진기자들을위해 포즈를 취하고있다. 【워싱턴22日 AP=聯合】

"核武器자료 교환하자"

레이건, 對蘇 4개항提議
미사일實驗 事前통보…直通전화기능 改善

【워싱턴=聯合】레이건 美대통령은 22일 소련측에대해 우발적인 핵전쟁을 미연에방지하기 위해 상호간 핵전력 기초자료를 광범위하게 교환할것등을 내용으로 한 4개항을 제시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밤 MX미사일배치에 관한 발표를 한후 전국TV연설을통해 소련의새지도자에게 불시에 오산으로 인한 초강대국간의전쟁이 발발하지않도록 하기위한 제안을 담은 「특별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제네바군축회담에서이 문제가 논의될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레이건대통령이 밝힌 對蘇제의는 ①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지상및 해상발사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실험을할경우 양국은 사전에 통보한다. ②모스크바와 워싱턴은 상호 대규모군사작전등을 알려준다. ③양국은 현재 사용할수있는 핵무기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교환한다. ④상호 직통전화시스템인 「핫트라인」시설의 개선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등이다. 한편 레이건대통령은 이에앞서 의회에 보낸통한을 통해 그동안 배치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되어왔던 MX핵미사일 1백基를 와이오밍州서부지역의 공군기지내에 5백50m~6백m간격으로 설치되는 고도의 견고한지하격납고에 密集배치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MX미사일들이 오는86년실전배치될것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계획은 미국의핵억지력을 개선하는 동시에새 소련지도층을 무기감축 협상에 끌어들이는데 목적을 둔것이라고 밝혔다.

蘇"對美양보 不願" 안드로포프

【모스크바UPI=聯合】안드로포프소련공산당서기장은 22일 앞으로 데탕트(緊張緩和)가 다시 이루어질것이나 美蘇관계정상화를 위해 현재로서는 양보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안드로포프서기장은 또 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결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공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중공측이 보이는 모든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안드로포프는이날신임정치국원임명등 크렘린의 지도부개편을 위해 개최된 黨중앙전체회의에서 서기장에 임명된후 처음연설을 통해 브레즈네프의 외교정책을 충실하게 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모스크바=聯合】소련은 23일하오4시(한국시간) 크렘린에서 최고회의 간부회의를 열고 브레즈네프의 뒤를 이어 공산당서기장이된 안드로포프와 스테판·실라예프, 니콜라이·G·바소프등 39명으로 구성된 소련최고회의 간부회의의원을 선출했다.

崔允喜 수영서 金메달
배영2百m
언니 允庭·方駿榮은 銀획득

【뉴델리=한국신문공동취재단】한국의 崔允喜는 23일이곳서 열린 제9회아시안게임 수영여자배영2백m결승서 2분21초96의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崔의 언니 崔允庭은 2분22초85로 은메달을차지했다. 한국이 아시안게임 여자수영서 금메달을 차지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수영남자접영 2백m에서 方駿榮은 2분06초82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이날 한국여자테니스팀(金壽玉 金男淑)은 여자단체전서 필리핀을 2-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진출, 은메달을 확보한가운데 日本-中共 승자와 금메달을겨루게 되었다. 한국은 22일 궁도 남녀단체전서 2개의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밖에 사이클1천m 개인독주서 金永洙는 1분10초78로 은메달을, 수영여자접영 2백m서 金昤希는 2분21초79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農漁청소년 受賞者 全대통령, 오찬치하

全斗煥 대통령은 23일 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제2회 농어촌청소년大賞 수상자 18명(단체2, 개인16명)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함께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사진>

全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는 地下水개발과 댐건설, 그리고 저수지개발등을 통해 旱害등 天災地變에도 농사에 큰피해가 없도록 시책을 펴 나갈것이며 養殖등 어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朴鍾汶농수산부장관, 金鍾洙수산청장, 金文憲농촌진흥청장, 金準재마을운동중앙본부회장과 文胎甲서울신문 李元洪한국방송공사사장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弓道 金획득에祝電

全斗煥 대통령은 23일 아시아 경기대회 弓道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 남녀 선수들에게 축전을보내 치하 격려했다.

◇여자수영사상 처음 한국에 아시안 게임 金메달과 銀메달을 안겨준 자매 崔允喜(右)와 崔允庭. 동생 允喜는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언니 允庭과 나란히 여자배영2백m 1, 2위를 차지했다. 【뉴델리23日 聯合=聯合】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独立紀念館건립 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23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共榮土建 禹在九대표 外 9백46만원
원풍물산(株)임직원 一同 2백32만원
在사우디 技能工 64명 1천9백리얄
의정부市 호원동 8통 38만원
觀音精舍信徒일동 33만원
美都라이온스一同 30만원
프린스商事一同 20만원
江東사이클會 10만원

◇禹在九씨

▲共榮土建(株) 代表 禹在九씨外 任職員一同=9백46만4천2백90원 ▲원풍물산(株) 임직원一同=2백32만7천6백원 【소년한국접수】 ▲在사우디 알랍티 타누마현장기능공 김만용씨외64명(한국해외개발공사알선업체)=사우디貨1천9백45리얄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8통(통장 김덕이)주민一同=38만1천원(1반장 김금선씨외주민一同=7만8천원, 2반장 송조호씨〃=5만7천5백원, 3반장 이경석씨〃=5만원, 4반장 송우산씨〃=6만9천5백원, 5반장 이귀현씨〃=7만7천원, 6반장 우기진씨〃=5만4천원) 【의정부지국접수】 ▲觀音精舍(信徒一同)=33만원 ▲美都라이온스클럽(회장 金榮洙씨)外一同=30만원 ▲프린스商事 姜和熙代表外 任職員一同=20만9천원 ▲江東사이클會(회장 李相勳씨)회원一同=10만2천원 ▲경기도평택군포승면내기리 나사렛교회 목사 이창순씨외 교인一同=5만2천원 【포승지국접수】 ▲강서구염창동7통1반주민一同=3만원 【양동보급소접수】 ▲강원도정선군사북6리 운남국교(교장 선낙석, 교감 한상목)교직원및 학생(대표6년김주오)一同(2차분)=16만6천원 【사북지국접수】 ▲경기도남양주군 토평국교2년 강주희, 4년 강경희자매=5천원 【소년한국접수】

獨立기념관 부지 協議불응땐 收用
法規개정 施行

정부는 忠南天原郡木川面 新溪里일대를 기념관 건립예정지로 확정함에따라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토지매입을 직접할수있게하고 協議매입을 할수없을경우 추진위가 收用도 할수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 23일부터 시행에들어갔다. 이에따라 木川面新溪里일대에 독립기념관을 설립키위한 토지매입작업 준비에 필요한 법적인 조치가 마무리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木川面新溪里일대 1백만평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와의 協議매수를 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경우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합리적인 선에서 收用할수있도록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 규칙(건설부령)을 고쳐 23일부터 발효케됐다』고 말했다. 개정규칙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시행할수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기념관등 문화시설인 경우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자가 설치할수 있게하고있다.

地平線

흔히 여염집에서 산해의 진미로 성찬을 차렸을때 손님들은 사또상이라느니 수라상같다느니 하고 치사를 하게마련이다. 사또상 수라상이란 왕이 받는 반상이라는 것을 알기는 하나 과연 거기에 오르는 찬이며 상차림은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지극히 드물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궁중음식연구원(원장 黃慧性)에서는 왕과 왕비및 대비가 드는 수라상을 비롯하여 궁중에서 잔치때 차리는 진연상과 진찬상 그리고 전통적인 요리를 선보여서 일반의 궁겨움을 풀어 주었다. 거기에 전시된 상차림에 따르면 수라상에는 12첩은반상기가 올랐다고 한다. ▼보통 가정에서는 접시가 7개인 7첩놋반상기가 고작이고 사대부집에서나 어쩌다가 9첩놋반상기가 있었다. 수저도 기껏 백통에 은을 박은것을 사용했을 따름인데 근자에는 조금 여유가 있다는 집이면 12첩은반상기가 보통이고 일부에선 금수저마저 볼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같은 풍조는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적인 성장의 소산인것같고 또 달리 보자면 사치풍조의 팽창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시비곡직은 잠시 두고, 음식의 고급을 따지자면 실로 격세의 감이 있음을 알게된다. 그 격세감이란 첫째는 맛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동서양을 가릴나위 없이 간장이 으뜸이다. 옛날에는 궁중의 음식을 말은 소주방의 상궁들을 비롯하여 대갓집 찬모, 여염집의 주부는 한결같이 간장을 다스리는데 정성을 쏟았다. 심지어 며느리를 맞는데는 그집 간장맛을 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요즘은 대량생산된 간장이판을 친다. 집집마다 간장맛으로 하여 달랐던 음식맛과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간장때문에 그 맛과 간이 균질화되고 말았다. 우리들의 혀는 고향의 맛과 어머니의 맛을 상실한채 맛을 아는 혓바닥의 감각이 차츰 발바닥처럼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하게한다. ▼아마도 그런 사정은 [illegible] 수라상을 차려도 그 맛이란 대스러울것이 없기가 십상일듯 싶다.

◇알림=「社會漫評」「무까비」는 安義燮화백의 身病으로 오늘 쉽니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
716 BLOOR ST.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렴 교육(문의)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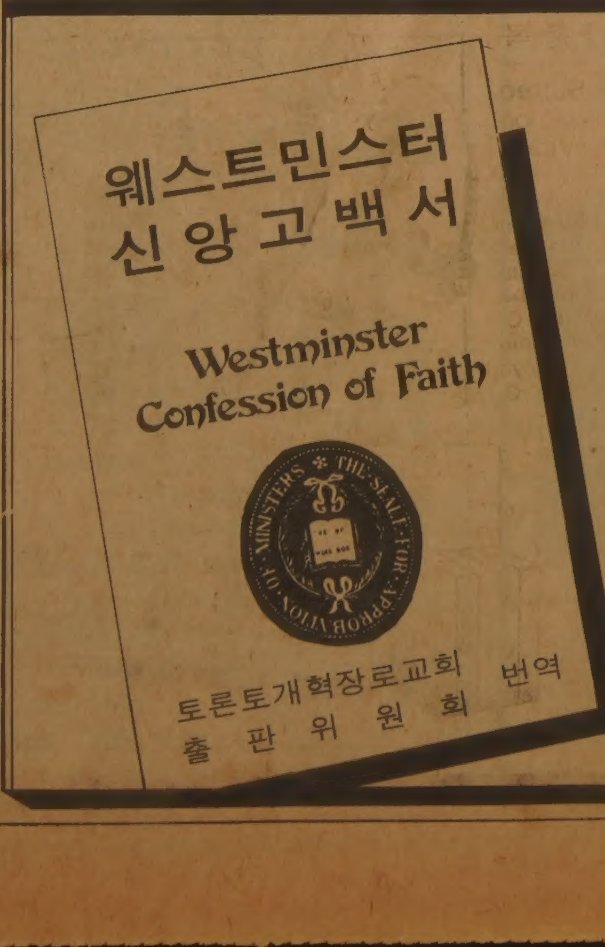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COSKA
정기총회

캐나다 한인 컴퓨타협회 82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컴퓨터 분야에 종사 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ㅁ일 시 : 1982년12월3일(금) 오후6시
ㅁ장 소 : 그라나다(GRANADA) 920 Yonge st. (North of Yonge)
ㅁ회 비 : 7불(저녁식사대 포함)
ㅁ연락처 : 492-9889 968-7122

COSKA



토론토개혁장로교회
출판위원회 번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47년에 제정, 채택된 스코트랜드교회의 공개신앙고백 개혁신앙의 정수, 전통적 기독교신앙의 근간, 성경전체가 가르치는 바 총개요

●알기쉬운 우리말 번역, 편리하게 배열되고 본문과 정확히 대조된 성경주석
●간편한 포켓북 사이즈, 총92페이지
●저렴한 가격 $3.00(송료포함)

다음 장소에서 절찬 판매중!!
한밭식품, 서울식품, 한국식품(동부)
삼복식품, 종교서관

주문 구입하실분은 다음 주소로 연락(Money Order 또는 Check 동봉) 하십시요.
Toronto Reformed Presbyterian Chuch
P.O. Box 2603, STATION "F"
Scarborough, Ontario Canada, M1N 3P2
전화문의 : (416)498-0241 · (416)492-9889

토론토개혁장로교회
예배시간 : 2 : 00PM
예배장소 : 1355 Warden Ave. (South of Elsemere Rd.)

대각사
법회안내

임술년 삼동결제를 오는 음력 10월15일 (양력 11월30일) 화요일 저녁7시에 있겠사오니 사부대중께서 두루 참여 있으시기를 알려 드립니다.

대각사
신도회 드림

장소 • 대각사
11 Dawson Ave. Tor.
시간 • 11월30일(양력)화
(음력 10월15일)
저녁 7시
연락처 • 463-8998

무장 怪漢 정부군 攻擊

레바논 獨立 39돌 기념일에 발베크서

수비대와 銃擊戰

國防省 "시아派 대원"

【베이루트AP=聯】 대규모의 무장괴한들이 레바논독립39주년일인 22일 동부레바논의 발베크에 주둔하고있는 정부군수비대를 공격, 2시간동안 총격전을 벌였다고 레바논국방성이 밝혔다.

레바논국방성은 이날발표성명을 발표 복면을 한 무장괴한들이 전날 시아파회교반도들이 발베크시청을 한때 점거했던것과 같은방법으로 수비대막사를 공격해 왔으나 2시간동안의 총격전끝에 패주했다고 밝히고 이 총격전으로 무장괴한 3명이 숨지고 정부군 2명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국방성은 무장괴한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 무장괴한들이 아민·제마옐대통령의 중앙정부에 반대하는 시아파 회교대원들이라고 전했다.

국방성은 발베크사태가 평온해졌으며 정부군이 이지역의 수비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발베크시청의 21일 점거사태는 제마옐대통령정부에 대한 일대 모욕으로 간주됐으나 이날의 정부수비대공격사건은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베이루트의 외교소식통들은 분석했다.

◇바웬사 神父와담소 前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22일 그다니스크에서 聖브리기드스성당의 한리크·얀코프스키신부와 담소를하면서 성당을 걸어나오고있다. 【그다니스크22日AP(연합)=聯】

동료公安員과 총격전

波여객기 납치범、西獨서

【베를린=聯】 폴란드국내선여객기를 납치한 폴란드 로트항공사소속 공안원은 西獨의 템펠호프공군기지에 착륙한후 동료공안원 2명과 총격전을 벌여 부상했다고 西베를린경찰당국이 22일 밝혔다.

2정의 권총과 2개의 수류탄으로 무장한 이 공안원은 브로츠라프에서 바르샤바를 경유하여 그다니스크로 가던 로트항공사소속 안토노프24기를 납치하여 西獨에 착륙, 승객4명과함께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었다.

경찰당국은 피납여객기가 템펠호프 공군기지에 착륙하자마자 이 공안원이 여객기에서 뛰어내렸으나 동료 2명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이에 응사했다고 말했다.

템펠호프 공군기지의 美공군대변인은 피납여객기에 31명의 승객과 승무원4명, 그리고 납치범을 포함한 공안원3명등 모두 38명이 타고있었다고 말했으나 西베를린 경찰당국의 성명은 승객29명을 포함, 모두 36명이 타고있었다고 밝혔다.

여객기납치범은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를 받은후 23일 공중납치혐의로 西베를린법정에 서게된다.

蘇 키릴렌코 退陣

黨政治局員·中央委員職 해임

알리예프는 새政治局員에

【모스크바AP·聯=聯】 소련의 원로정치인인 키릴렌코(76)가 공산당정치국원직과 중앙위원회위원직에서 해임되고 정치국후보위원이며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당제1서기인 게이다르·알리예프(59)가 정치국원으로 승진했다고 관영타스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한때 브레즈네프의 유력한 후계자로 물망에 올랐던 키릴렌코가 「본인의 요청과 건강상의 이유」때문에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에서 물러났으며 당서기장 안드로포프는 그가 공산당과국가에 미친 공로를 치하했다고 전했다.

이통신은 또 국가기획위원회(고스플란)의 제1부위원장 니콜라이·리즈코프(53)가 강력한 중앙위원회 서기로 승진했다고 밝혔으나 한때 사망설이 나돌았던 최고령정치국원 아르비드·펠셰(83)에 관해서는 아무런언급이 없었다.

키릴렌코의 퇴진에따라 새로 정치국원이 된 알리예프는 지난69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당제1서기가 될때까지 2년간 비밀경찰인 국가보안위원회(KGB)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지부장을 지냈으며 리즈코프는 75~79년중공업건설성 제2차관을 지낸후 79년2월 국가기획 위원회제1부위원장이 됐다.

당서기장 안드로포프는 12명의 정치국원중 단1명만을 경질함으로써 사실상 브레즈네프 생존시의 정치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는데 키릴렌코의 퇴진과 알리예프의 승진으로정치국원들의 평균연령은 브레즈네프시대의 70세보다 2세낮은 68세가 됐다.

나까소네 勝利확실

日自民黨총재 예비선거전

【東京=宋孝彬특파원】 일본자민당총재선거는 1개월동안의 예비선거전이끝나 23일 1백4만명에이한우편투표가완료되어24일 개표된다.

23일 상오 현재 집계된 투표자는 95만명으로서 90%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나까소네(中曾根) 행정관리청장관이 유효투표의 과반수를얻어 1위가될것이 확실시되며 비주류의 고오모또(河本)경제기획청장관이 2위로서 나까소네후보를 추적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中共·개혁·개편확대 진행중

中央黨과 지방 1급黨 까지

【홍콩=聯】 중공은 최근 중앙당·정기구에 대한 개혁과 개편을 순조로이 진행시키고 있는한편 지방의 1급(29개성과 도시를 지칭) 당·정기구에 대해서도 이미 개혁과 개편작업을 개시했다고 23일 홍콩의 중공계일간신문 문회보가 北京특파원기사로 보도했다.

문회보는 중공당중앙위원회 주석 胡耀邦이 최근 지방시찰에서 입부 1급지방당및 정부를 지정하여 개혁과 개편에 대해 지시를 했다고 말하고 중공은 개혁과 개편에 대한 지시가 내려진 이들 일부 지방은 오는 연말까지 개혁과 개편의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1월부터 3월까지 이를 단행한다고 말했다.

中共 國營商店

自律판매권한 擴大

【北京AP=聯】 중공은 국영상점들의 관료주의적 고자세와 불친절한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있는점을 감안, 국영상점들의 역할을 축소조정하는한편 농민들의 자율판매권한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중공관영英字일간지 차이나·데일리가 22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이같은결정이 최근에 개최됐던 전국거래관계회의에서 내려졌다면서 「이에따라 집단협동상점및 개인소유상점들이 국영상점의 도·소매거래업무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인계받게 될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메아리

웬일이니

이런 것도 시리즈라면 시리즈다.

대학생들 사이에 번졌던 참새, 식인종, 개구리 시리즈를 본떠서 이름을 붙이자면 無罪시리즈다.

한갓 우스개인 대학생들의 시리즈는 듣고 웃어 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어른들의 無罪시리즈는 그렇지가 못하다. 시리즈일 수 없는 일이, 차례차례 시리즈처럼 이어져 나오니, 사태는 사뭇 찜찜하다.

無罪시리즈의 시작은 지난 2월초 尹景花씨 사건 高淑鍾피고인에 대한 無罪판결이었다. 高피고인은 2審에서도 無罪판결을 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뒤로도 심심치 않았던 無罪시리즈의 最新 에피소드는 지난20일 2審에서 無罪판결을받은 朴尙道양사건 鄭載巴피고인의 경우다. 鄭피고인은 지금 보석을 신청중이지만 (한국일보23日字11면) 그 이유중에 『장기구속으로 학업에 지장이 많다』는 대목이 눈을 끈다.

일이 여기 이르러, 당연한 물음은, 『웬 일이니?』 한마디에 그친다.

그 것은 범죄수사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수사를 맡은 사람들의 능력과 태도만이 아니라, 범죄수사의 제도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같은 투의 無罪시리즈를 끊잖내지 못하느냐는 물음이다. 이래 가지고는 수사의 公信力은물론 형사피의자의 人權이 온전하다 할수가 없을테니, 그 물음은 다급하고 간절하다.

앞에 예시한 無罪시리즈의 두 사건은 「증거가 없다」는 無罪판결 이유, 無罪판결 뒤의 보석신청등의 경과가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두 사건이 닮은 점보다는 서로 판이한 점 하나가 먼저 지적되어야 할것같다.

시리즈 첫머리의 尹씨사건은 처음부터 장기 연행과 고문등 경찰의 불법수사로 말썽이었다. 반면 朴양사건은 마찬가지 말썽투성이 경찰수사를 뒤엎고 검찰이 직접수사한 사건이다. 말하자면 尹씨사건은 「경찰사건」이요, 朴양 사건은 「검찰사건」이다.

朴양사건이 逆轉되었을 때의 신문을 찾아 보면 『과연 검찰』이란 칭송이 행간에 가득하다. 경찰수사의 公信力을격정하는 신문論調, 『죄송하다』를 연발한 경찰간부의 코멘트와 퍽대조적이다.

그러나 지금와서는 그때 칭송이 높았던만큼이나 실망이 클수밖에없다. 그때 경찰수사의 公信力을 걱정했던것처럼, 지금은 검찰수사의 公信力을 걱정해야 할판이다. 그에대한 검찰의 코멘트는 어떤 것일까.

여기서 한가지 분명한것은, 검찰수사도 사람이하는것이니까, 범인을 잘못짚을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은 경찰수사의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숫제, 完全犯罪가 있을수 없듯이 完全搜査도 있을수없다고해야 옳다.

수사의 公信力이란 바로이렇게 「限定된 信賴」를 이름이다. 그나마 그信賴관계는 수사를맡은 당사자들이 수사의 한계를 인식할때에만 성립된다. 바꿔말하면 수사에대한 公信力은 그나마 그한계를 인식하고있다는데 대한 信賴인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때, 어떤 사건을 「경찰사건」이니 「검찰사건」이니 하는 뜻은 별로 크지 않다. 어느경우건 수사는 잘못될수가 있고, 지나칠수도 있다. 그에대비한 安全裝置가 근대화된 刑事法規다.

그앞에서는 경찰이요, 검찰이요 할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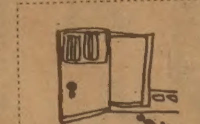
그런데도 현행의 우리 刑事法은 「경찰사건」과 「검찰사건」을 나누어 차등을 둔다. 그 두드러진 예가 이른바 「검사의 犯罪認知사건」을 拘束適否審사에서 제외한 따위다.

말할것도없이 이런 例外규정이 타당하다고 하려면, 검찰수사에는 잘못이 있을수가 없다는 전제가 서야 한다. 하지만 검찰수사라고 모두 완전할수가 없음은 鄭피고인의 경우에서 보는 대로다.

더구나 지금처럼 모든사건의 수사가 검찰지휘아래 있고, 모든 구속영장의 청구는 검찰을 거쳐야 하는마당에 拘束의 適否를 심사한다는것은, 사실상 검찰의 잘 잘못을 심사하는 일면을 지닌다. 그런데 적부심에서 검찰認知사건을 따로 떼내어 심사를 배제할 까닭이 없어진다. 適否審을 부활한 새 憲法정신에도 위배된다.

人身보호제도를 포함한 刑事法의 대원칙은 반드시 고상한 法理論에서만 나오는것이 아니다. 그 것은, 아무리 公權力이라도 그 행사는 사람이 한는 것이란 평범한 사실, 그래서 完全搜査란 있을수가 없다는 인식에 근거하고있다.

우리를 찜찜하게 한는 無罪시리즈는 그에 대한 하나의 일깨움이다. 이 일깨움 앞에, 경찰이건 검찰이건, 수사는 完全無缺의 傲慢을 버려야 한다. 그 傲慢을 받아들인 刑事法規는 하루속히 고쳐져야 한다.



金昌悦
<編輯委員>

半人·半動物 나온다

美서 유전자이식 生産가능

日서도 생쥐에 實驗승인

노예로 利用위해 大量생산 될지도

半人間·半動物의 해괴한잡종동물을 출산시켜 기른뒤 노예로 이용하거나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생산하듯 인간을 複製해 전쟁에 소모하는 끔찍한세상이 다가오고 있는지도모른다.

최근 美대통령직속의학관계특별위원회의 한보고서는 인간의 유전인자를 동물에 이식시켜 인간에가까운 잡종을만들어 노예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위원회는 美하원 기술소위원회의 청문회에 제출된 연구보고서에서 아직 이지구상의 어떤정부도 유전공학을 이용, 복제인간이나 잡종을만들어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증거는없지만 나치독일시대에 유태인 슈퍼맨및 정신적지진아등을 우생학적으로 개조하려했던 전례가 인간-동물의 잡종탄생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일본정부의 한 자문기구는 23일 인간의 유전인자를 생쥐의 수정관에 이식시키는 실험을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보도는 더욱 잡종탄생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일본문부성의 자문기구인 과학위원회는 동물자궁에 인간의 유전자를 이식시키는것은 승인했으나 그같은 유전인자를 인간의인공수정관, 인간 또는 靈長類에 이식하는 것은 금지시켰다고 발표 했다.

한때 美폭스·체이스암센터의 B·민츠박사를 포함한 한연구그룹이 사이언스誌에 『인간의 베타-글로빈유전자를 생쥐의 난소에 주입시켰더니 큰쥐가 되어 2세에서도 이인자를 보유, 2세에게 물려주었다』는 실험결과를 발표, 전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었다.

오늘날의 고도로발전된 생명공학은 이미 실험생쥐과 똑같은 쥐·올챙이를 복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인간도 대량으로 복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릴린·먼로와 같은 미인,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를 대량으로 생산해 낼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미 미국젠슨연구소의 피터·홉테박사팀은 쥐의 복제에 성공했다. 【워싱턴·東京=聯合】

안드로포프 1人體制될까

잇따른 黨중앙위·最高회의 그 內幕은…

◇蘇聯최고회의간부회의 광경. 이 회의에서 의장이 선출되어 국가원수로서의 기능을 맡게된다. 이사진은 지난78년 회의때 찍은것이다. 【聯】

유리·안드로포프(68)가 브레즈네프장례식이 채 끝나기도전에 이례적으로 빨리黨서기장에 취임, 브레즈네프후계자의 자리를 굳혔을때 관심의 초점은 안드로포프의 黨서기장취임이 「1人支配체제」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최고회의간부회의 의장및 국가권력을 공유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의미하는가에 모아졌었다.

소련은 22일 黨의 가장 중요한기관인 黨중앙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3일에는 연방최고회의를 개최했다.

이 두회의의 결과를 보면 안드로포프체제에 대한 의문이 어느정도 풀린것으로 보인다.

黨중앙위 전체회의는 22일 소련의 지도부인 정치국개편을 단행, 브레즈네프의 후계자로 유력시되던 안드레이·키릴렌코를 퇴진시키고 그자리에 소련비밀경찰(KGB) 출신인 알리예프를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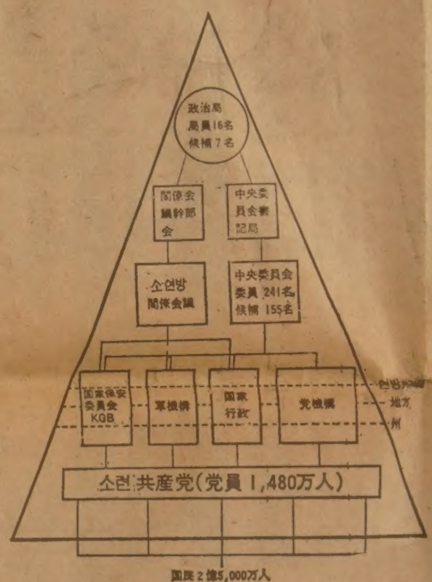
서방관측통들은 안드로포프가 이번 중앙위전체회의에서 3~5명의 심복을 정치국원에 선출함으로써 신속히 권력기반을 다질것으로 관측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안드로포프의 심복 1명만이 정치국원에 피선됨으로써 안드로포프가 1人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제약을 받고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치국원수는 일정하게 정해진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따라 加減되기때문에 안드로포프가 지지기반만 튼튼했더라면 정치국후보위원인 돌지크 중공업담당서기, 오가르코프 참모총장, 페토로프 KGB의장등 자신의 심복을 정치국원으로 밀수도 있었을 것이다.

안드로포프가 비록 경이적인 스피드로 권력승계에 성공하긴 했지만 브레즈네프권력구조를 자기중심체제로 바꾸기위해서는 많은시간을 필요로 하고있음을 이번 중앙위전체회의는 보여준셈이다.

크렘린의 權力투쟁사는 한개인이 1人支配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5년 안팎의 세월이 필요하다는걸 보여주고 있다. 24년 레닌이 죽자 스탈린은 5년에 걸친 피의 투쟁끝에 1人체제를 확립했고 스탈린 사후의 흐루시초프, 흐루시초프 失脚후의 브레즈네프 역시 1人지배체제확립에 5년이상이 걸렸다는 점은 마찬가지였다.

서방의 소련전문가들은 안드로포프가 1人지배체제를 예상밖으로 빨리 구축하려 드는 이유로 몇가지를 들고 있다.



幹部회의議長 선출이 열쇠

KGB·軍部서 신임、天下統一 가능說도

우선 안드로포프는 소련의 가장 강력한 세력집단인 KGB와 군부의 절대적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KGB는 안드로포프가 15년이상 의장으로 재직해왔던 기관이고 現의장 페토로프크는 안드로포프의 심복이다.

군부역시 안드로포프를 지지하고 있다. 안드로포프 執權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은 군부의 리더인 우스티노프국방상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KGB와 소련군부는 대립관계에 있어왔으므로 안드로포프 執權에 군부가 가장 큰 장애가될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예상은 일단 빗나간것으로 보인다. 소련에서 군부와 KGB가 힘을 합치면 못할일이 없을것이다.

그다음은 안드로포프의 나이와 病歷이다. 안드로포프는 현재 나이는 68세로 집단지도체제라는 과도기를 거쳐 1人체제를 굳히기에는 나이가 너무많다.

게다가 안드로포프는 당뇨병과 심장병을 앓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심장발작도 1번이상경험한것으로보인다.

안드로포프의 정치적성품도 고려에 넣어야한다. 백발에 무테안경을쓴 그의외모는 얼핏보기에는 융통성있는 한 리버럴주의자로 보이지만 그가지나온 정치역정은 그가 철두철미한 차가운 권모술수가임을 보여주고있다.

안드로포프는 자기일에 철저히 몰두하고 그분야의 1人者가 되기를 원하는 냉철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치적성품의 안드로포프가 지도자간의 견제와 균형을 중심으로한 지도체제를 이끌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이다.

최고회의의개막 며칠전 부터 안드로포프가 국가 원수직인 최고회의간부회의 의장직 까지 겸함으로써 단기간내에 1人지배체제를 굳히고 統一天下를 이룩할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설사 안드로포프가 자신이 직접 최고회의 간부회의 의장직을 차지하지 못한다 해도 자신의 영향력아래있는 인물을 추대하려할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경우 안드로포프는 그로미코외상(73)이나 쿠즈네초프 최고회의간부회의 제1부의장을 밀것으로 보인다.

그로미코는 후계자 선출시 안드로포프를 전폭 지지한것으로 알려졌으며 쿠즈네초프는 黨內에 세력기반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문제는 안드로포프와 라이벌관계에 있는 체르넨코의거취이다.

만약체르넨코가 안드로포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부회의 의장에 선출된다면 안드로포프의 설익은 統一天下계획은 일단제동이 걸리고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23일 개막되어 회의에들어간 蘇연방최고회의에서 최고회의간부회의의장이 누가 선출되느냐에따라 앞으로 안드로포프체제의 윤곽이 드러날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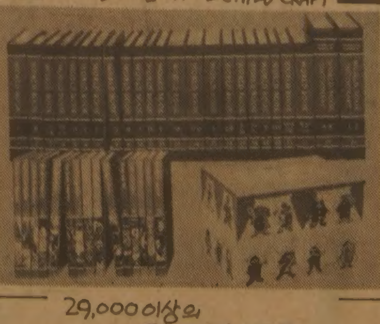
1천5백명에 달하는 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최고회의대의원들은 항상 거수표결을통해 만장일치로 최고회의간부의장을 선출해왔다. 【李炳圭기자】

꽃도매상

▲모든 채소 종류
▲각종과일
▲화분
▲Cut Flower
▲Hanging Pl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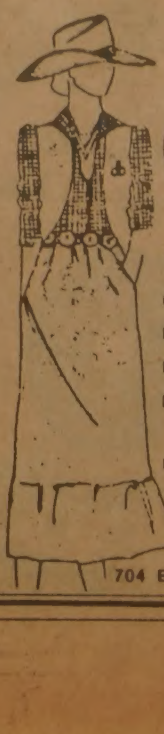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대표 : 곽 덕열
전화 : 465-8167

Special Offer
WORLD BOOK
어린이를 위한 "CHILD CRAFT"



29,000이상의
사진·그림·지도및
챠트 포함
22권 World Book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숙녀복 전당
Mirage Boutque
(구 코스모스)



크리스마스
선물용
상품권 판매

할인판매
□드레스 종류
□선물용 부라우스
□물세무 투피스(size 6.8.10)
□각종 자켙(Pig skin, Lamb skin, Rabbit Fur)
□겨울용 오바 코트
대표 최은경
☎ : 530-1870
704 Bloor st. W(아리랑하우스 옆)

De 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4 carat Solitaire
Reg. $1000
Special $749

이태리산 Herringbone
CHAIN SPECIAL
□16인치 $135
□18인치 $150
□20인치 $165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이것도 「民怨」

海外근로자 家電品 면세 쿠폰制

代理店선 엉뚱한製品 강요

物品인도 늑장등 20여건 告發

◇프로판가스 폭발로 수라장이된 갈비집。 가스상회 종업원의 부주의가 사고를 불렀다。

열사의 중동에서 땀흘려번 돈으로 일제가전제품을 잔뜩 사안고 돌아오는 해외취업근로자들의 수가 대폭 줄었다。

자제심의 작용도 있겠으나 이들근로자를 상대로한 국산가전제품 면세쿠폰제도가 크게 활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면세쿠폰제는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이쿠폰으로 국산컬러TV、카세트、카메라등 6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국내에 반입할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주어 해외근로자들의 애국심도 높이고 달러의 가득률도 높인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것。

그러나 근로자의 소속회사와 가전제품메이커간의 업무연락차질、일부대리점의 횡포등으로 까다롭고 불편스러운 부작용을 낳고있어 귀국근로자들의 손쉽는 민원(民怨)의 대상이 돼가고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를지난해 7월부터 실시해왔는데해외근로자들의 80~90% 정도가 이를 활용하는등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지난8월부터는 대상지역을 東·西남아、南美까지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이 생겨 제때에 물건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엉뚱한 물건을 강요당하는등 해외근로자들을 실망시키는 사례가많다는 것。

또 취업회사와 생산회사간의 서류·송금등 절차가 안끝나 헛걸음치거나 물건이 없다는 이유로 기다리게 하는가하면 당초 약속과달리 중급이하의 제품을 내주기도한다。

이같은 사실이 현지에알려지자 일부취업근로자들은 오퍼상이 발행하는 비공식사제 쿠폰을 사들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예 국산을 외면、외제를 사는등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빚어지고 있는것이다。

현재 18만여 해외취업자들중 매달 귀국하는 1만~1만5천여명의 80~90%가 이쿠폰을 이용, 국산가전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그러나 부푼 꿈을안고 돌아와보면 사정은 너무 다르다。

N토건의 전공인 鄭海哲씨(47·전남光州市西區柳德洞국민주택9호)는 지난 3월10일 사우디 주베일현장에서 D전선의 컬러TV를 쿠폰으로 구입했는데 귀국후 인도장소인 D전선光州지사로 찾아가자 물건이 없다며 돈으로 받아가라고 했다는것。 鄭씨는 시중가보다 10만원정도 싸게 팔고 현금으로 받아 가라는 말에 항의하자 4개월이지난 7월23일에야 TV를 내주었다는것。

H건설 쿠웨이트현장에서 K사 16인치컬러TV의 면세쿠폰을산 申弘均씨(32·仁川市東區松林4洞8)도 지난8월29일 귀국한이후 아직 물건을 받지 못했다。

귀국 10일후에는 서류가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지난달18일 서류도착 이후에는 물건이 없다고 말해 60일이내에 인도하게 돼있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것같아 두렵다는것。

한편 사제티킷은 오퍼상들이 끼워팔기까지벌여 사는사람이 많은데 이 또한 면세상품의 교환약속이 제때 지켜지지 않고있다。

J기업 리야드현장에서 대리점에서 2천2백30리얄에 18인치 컬러TV와 뮤직센터의 교환권을구입한 金相勳씨(39·仁川市南區朱安7洞1350)는 지난4일 인도장소인 서울서부역앞 J무역으로 찾아갔으나『현지에서 물건이 오지않았다』며 25일 다시 오라고 했다는것。 오퍼상발행의 교환권은 대부분 구입 20일이내에 서울세관에서 찾을수있다고 돼있으나 이같은 약속위반때문에 특히지방거주근로자들의 피해가크다。

지난달 12일 서울에온 鄭鐘錫씨(35·전남麗川郡召陽面德陽里)의 경우도 TV가 도착하지 않았다고해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23일에도 헛걸음치고 25일에야 물건을받을수 있었다。

또 구입자들의 희망과달리 규격이 다른 물품을 내주며 돈을 더낼것을 요구하는 사례도있다。 Y건설근로자 申東煥씨(27·서울西大門區北加佐洞186의34)는 14인치대신 16인치를내주며 4만원을 더내라고해 항의끝에 내달4일 14인치를받기로했다。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는것은 근본적으로 상도의가 확립되지않은 탓도있지만 건설회사들이 송금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귀국 20일전에 서류·송달·송금등의 절차를 마무리짓지않는것도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있다。

각건설회사에서는 임금명목이외로는 외환송금을 못하게돼있는데다, 이 돈이 외환은행에 들어가 물건을판 업체에서 연락을받고 찾아가도록 돼있는등 송금제도상의결함도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의하면 이같은 물품인도늑장 사례 고발건수는 지금까지 2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로 귀국근로자들이직장일을 보지못한채 쫓아다녀야하거나 불친절등 피해를입는 사례는 훨씬더 많을것으로 추정되고있다。

【鄭在龍기자】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

추위 내일부터 풀린다

週末눈·비온후 月末께 다시寒波

오늘새벽 大邱·光州 영하1度

大邱·光州 이북을 영하로 끌어내린 小雪추위도 24일까지 계속되다가 25일부터 풀리겠다고 23일 중앙기상대가 예보했다。

小雪인 23일아침 지방별최저기온은 大關嶺이 영하6·5도로 가장낮았고 春川영하4·6도 大田 영하1·8도 서울영하1·4도 大邱와 光州가 영하0·6도였다。

그러나 24일새벽에는 더욱 추워져 서울의최저기온이 영하2도 春川은 영하8도 大邱·光州도 영하1도를 각각 기록했다。

중앙기상대는 이번추위가 24일낮부터 누그러져 25일에는 春川이 최저영하3도, 서울 田과 淸州가 영하1도, 大邱는 최저0도로 전국이 예년과 비슷한 초겨울기온을 유지할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대는 그러나 27~28일께 전국적으로 한차례 비나 눈이내리고 이달말께 또한차례 한파가 밀어닥칠것이라고 내다봤다。

3억원 사용처수사 / 協成재단 특별監査

【大邱】속보=학교법인 협성교육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고있는 대구시 교위는 23일 산하 각중고교로 부터 재단에 불법전입, 전용된 교비가 모두 7억7천만원인것으로 밝혀내고 전입금의 사용처를 계속 조사중이다。 감사반은 불법전입된 교비 7억7천만원중 3억원은 산하학교의 시설투자에, 1억7천만원은 강당신축에 사용하는등 4억7천만원은 산하학교에 재투자한것으로 확인했으나 나머지 3억원의 용도가 분명치않아 이를 집중적으로 캐고있다。【聯】

新義州 반공義擧 37주년紀念式

新義州 학생반공의거 37주년 기념식이 23일상오10시 서울 世宗문화회관에서 사단법인 新義州학생의거기념회(회장 吳制道) 주최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개회선언에 이어 당시의거에 참가했던 李尙勳씨(전총경)의 투쟁보고, 全斗煥대통령과 유엔사무총장, 북한학생에게 보내는 호소문 낭독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具本錫서울시 교육감과 서울永樂교회 韓景職목사를 비롯, 1천여명의시민 학생이 참석했다。

金得九 선수 고향에 安葬

【東草】故金得九선수의 발인제가 23일상오9시30분 강원高城郡巨津邑盤岩里 고인의 고향마을에서 梁仙女씨등 유족과 친지, 梁正圭한국권투위원회 회장등 권투관계인사·주민등 5백여명이 애도하는 가운데 高城郡 체육회장으로 거행됐다。

金선수의 유해는 발인제를 마치고 집에서 5백m 떨어진 盤岩里 봉화대 산중턱에 마련된 묘역으로 옮겨져 상오10시30분 유택에 안장, 영면에 들어갔다。【聯】

金得九 콩팥移植한 두美國人 상태좋아

【샌프란시스코UPI=聯】故金得九선수로부터 콩팥을 이식받은 2명의미국인이 상당히 경과가 좋아지고있어 곧정상을 되찾을것으로 보인다고 한 신장이식전문가가 22일 밝혔다。

캘리포니아대학분교 샌프란시스코대학병원의 이식담당전문가인 수잔·호퍼여사는 콩팥이식을 받은 환자의 건강상태가 이렇게 양호한것은 『극히 드문일』이라고 말했다。

朱永炯 死刑확정

潤相군유괴살해 大法院、상고기각판결

대법원형사부는 23일 李潤相군 유괴살해사건의 朱永炯피고인(29·전京西中교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朱피고인의 상고를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미성년자약취유인살해)및 사체유기·자살교사 미수죄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 李모양(18·Y여고 2년)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 징역단기 3년, 장기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朱피고인등이 潤相군을 감금한 후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사망케했다면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보여져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衛生검사 實效없어 / 洪城 위반束手無策

【洪城】해마다 봄·가을 2차례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농촌지역 식품접객업소및 환경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위생검사가 형식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聯】

武道場서 不法의료행위

6명令狀 3명立件 척추·디스크등 治療

서울시경은 23일 무술도장에서 허가없이 척추교정, 디스크치료등 불법의료행위를 해온 서울鍾路區鍾路4街5 대한합기도회 건강도장관장 申義圭씨(27·서울鍾路區新門路1街16) 한국종합무술총본관관장 宋在徹씨(35)등 6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銅雀區鷺梁津洞30의67 중앙자유산아연구소 소장趙南上씨(57)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申씨는 지난8월부터 무술도장을 차려놓고 자격도없이 척추디스크 완치란 광고를 내붙 金澤鉛씨(46·서울西大門區南加佐洞)에게 의료행위를 해주고 치료비로 42만원을 받은것을 비롯, 76명으로부터 모두 1천5백만원을 받았고 宋씨는 지난 3월부터 「기적의 손」이라는 과대광고를 한뒤 찾아온 文京仁씨(42)등 1백12명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 척추교정시술등을 했다는것。

또 입건된 趙씨는 태아의 성별을 판별하고 임신을조절한다는등의 과대광고를 해온 혐의다。

이들은 보통3~4명의 술사범을 고용, 환자를 침대위에 누여놓고 마사지와 지압등으로 치료행위를 해왔는데 이들이 치료비로 받은 돈은 모두1억5천여만원에 달하는것으로 밝혀졌다。

◇영장신청
▲申義圭▲宋在徹▲徐載弼(31·서울中區山林洞205 한국무술총본부관장)▲崔延淳(30·서울中區筆洞2街19의3 한국·카이로프라틱위원회회장)▲李용호(35·미국명제이·스·영·라·서울江南區瑞草洞219의13·韓美카이로프라틱협회회장)▲沈昌洙(53·서울鍾路區鍾路4街46 신체교정원건강원장)

◇입건
▲趙南上▲劉先鍾(29·서울江南區盤浦2洞盤浦아파트 [illegible])▲金鉉鎬(34·서울西大門區 [illegible]) [illegible]

漁船전복 2명실종

北濟州해상서 풍랑만나

【光州】23일상오9시께 제주도 北濟州郡 楸子島 남방 2마일해상에서 전남 莞島郡 蘆花邑梨布里 李秉植씨(45) 소유1·7톤 동력선이 풍랑에 전복, 선주겸 선장인 李씨와 선원金東基씨(48·莞島郡蘆花邑梨布里)등 2명이 실종됐다。【聯】

14개 國立공원에 월동기 對策수립

건설부는 23일 설악산등 14개국립공원에대한 월동기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각시도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내년3월30일까지 각국립공원에는 대형산불이나 설해방지, 조난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등산제한구역이 설정되며 흡연이나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illegible]

카바레 대낮營業

【原州】강원도 원주시내 카바레등 일부야간업소에서 영업시간을 무시, 대낮부터 영업을 하고있어 말썽이 되고있다。

原州시내에는 카바레3개업소를 비롯, 나이트클럽1、극장식 맥주홀29、살롱17、 맥주홀1개소등 모두 40여개의 야간유흥업소가 난립돼있는데 특히 카바레는 하오7시30분부터 영업을 하게돼있는데도 대낮부터 영업을 하고있다는것。【聯】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 「人間市場」
●한국 투명·人間을 펜다

중산貯水池 완성돼 / 45억들여 4년만에

【忠州】中原郡上芼面中山洞 중산저수지가 22일 완공됐다。

中原농지개량조합이 공사비 45억5천4백75만7천원을 투입, 착공4년만에 완공된 이저수지는 제방길이 1백80m、높이40·7m로 도내의 저수지중 가장 높은데 최대저수량은 2백49만7천톤에 달한다。

이저수지의 완공으로 中原郡上芼面中山洞등 3개리, 槐山郡長延面、延豊面등 2개군3개면 8개리의 논3백44ha가 물걱정없이 농사를짓게돼 연간7백85톤의 식량증산이 가능하게된다。

한편 농조는 오는12월1일부터내년4월말까지이지역의 경지정리사업을 끝내기로 했다。【聯】

갈비집 2명다쳐 / 프로판가스통 갈아끼우다 / 연탄불에引火되면서 폭발

23일하오1시10분께 서울道峰區彌阿4洞860의19 주택가 갈비집(주인 沈載烈·43) 주방에서 프로판가스통을 바꿔끼던중 가스가 새어나와 연탄불에 인화되면서 폭발, 주방과 정화찻집·형제 [illegible] 12평크기의 갈비집내부가 크게부서지고 주인 沈씨와 부인 李松子씨(42)등 2명이 다쳤다。

이날사고는 갈비집이웃 신진가스상회 종업원 李益善씨(21)가 10kg들이 프로판가스통을 바꿔 끼던중 가스밸브의 손잡이가 떨어져나가고 없어 멍키 스패너로 밸브를 열었다가 제대로 잠그지않아 새어나온 가스가 주방에 차 있다 주방안연탄화덕에 인화되면서 폭발한 것。

사고당시 갈비집에는 손님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적었으나 갈비집은 벽이 무너지고 지붕과 기둥만 남긴채 크게 부서졌으며 이웃 막걸리시음장과 정화찻집·형제 [illegible]

盜掘한 新安보물 60여점 사들여 / 青磁1개 日人에 팔아

골동품商구속

서울鍾路경찰서는 23일 孫壽錫씨(48·골동품상·충남大田市東區紫陽洞66의4)를 문화재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孫씨는 지난해1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걸쳐 新安앞바다에서 불법인양한 청자항아리·청자향로등 68점의 문화재를 도굴꾼들로부터 2천5백여만원에 사들여 보관하고 있다가지난 6월24일 이중 청자항아리1점을 부산東萊區溫泉洞 모여관에서 일본인 요네다·다다시씨에게 일화40만엔을 받고 팔았다는것이다。

烏竹軒 주차장좁아 / 觀光客몰려 큰불편

【江陵】李栗谷선생의 탄생지이며 보물제165호인 江陵烏竹軒에는 해마다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장이 비좁아 큰불편을겪고있다。【聯】

母子보건센터 신축 / 6개월째 入住안해

【鐵原】강원도鐵原郡 모자보건센터용으로 세워진 신축건물에 6개월이지나도록 모자보건센터는 들어서지 않고 鐵原郡보건소만이 입주해 있어 모자보건센터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鐵原모자보건센터건물은지난해11월 국비1억8천만원、군비2천만원등 모두 2억원으로 鐵原郡葛末邑 新鐵原里소재 1천2백여평의 부지에 착공、8개월만인 지난 6월 지하1층、지상2층、연건평 2백23평규모로 완공했다。

그러나 이건물은 모자보건센터가 입주하지 않은채 빈건물로 5개월이나 방치되다가 지난달27일 鐵原郡보건소만입주시켰다。

이때문에 모자보건센터의 진료를 기다리던 강원도일원의 7만여 산모들은 서울과 春川등지의 병원을 찾아야하는 불편을 겪고있다。【聯】

마늘·고추값오름勢 / 김장철 需要증가로

【蔚珍】김장철을 앞두고 산지의 마늘과 고추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현재 蔚珍郡蔚珍邑5일장의 김장감의 시세는 마늘의경우 상품1접에 12일전의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고추는 6백g에 재래종상품이 10일전의 1천7백원에서 1천9백원으로、개량종은 1천6백원에서 1천7백원으로 각각 올랐다。【聯】

5行뉴스

◆월남難民 마지막3명 떠나
【釜山】대한적십자사 월남난민보호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월남난민3명이 23일낮 12시10분 KAL편으로 金海공항을 출발, 네덜란드로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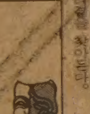
◆오늘새벽國際電話잠시두절
우리나라 유럽·중동아시아 각국간의 국제전화 (전신포함)가 24일 상오 7시15분부터 인공위성관계로 약5분간 일시 두절된다。

이 시간에는 아시안게임의 중계도 두절되나 그밖에 일본、미주등 기타지역과의 통신은 영향을 받지않는다。【聯】

「저승案內」

성모병원 臨床司牧 梅利岩신부

"人間은 존엄하게 죽을權利"



아무리 강한척해도 인간은 죽음앞에서 무력하다고한다。 불안·공포감과함께 허무함을드러낸다고도 한다。 그래서 마지막길에 앞서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이많다。 요즘은 어떤이유에서건 그수가 늘어간다。

서울明洞 성모병원의 梅利岩신부(51·사진·본명 LIAM MC CARRON)는 그이들도 생소한臨床司牧」이다。 인간이 돌아가는 영원한 안식처에로의 등불을 밝혀주는 안내자이자 동반자。 생의기쁨과 희망이 지하고 어느날 고통과 두려움의 마지막순간을 만났을때、그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찾아준다。

19세기 중엽부터 미국과 영국등에는 절망적인 외학적 신고를 받은 사람을 수용、봉사자들이 애정과 대화로 고통의 나날을 보살펴주는 호스피스」(Hospice)란 임종자의 집이 마련돼있다。 의사가 환자의 외적인 치료를 주로한다면 임상사목이나 호스피스에서는 환자의 영혼의 환부를 치료해준다。

북아일랜드가 고향인 梅신부는지난65년 서울往十里성당에 부임했다가 70년 미국에서 임상사목의 교육을 받고 돌아온 성직자。 지난해 다시 미국에가 전문적인 교육과 임상사목의 자격증을 받고 2개월전 성모병원에 부임했다。

그의 하루 일과는 새벽 6시30분의 미사와 함께 병동순례로 시작된다。 깊은 밤에도 환자나 가족이 찾으면 고통의 밤을 평화와 안식의밤으로 이끌어 준다。

『제일 중요한것은 환자의 존엄성과 자아의식을 지켜주는 일입니다』그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만도 5백개이상의 임상사목 교육기관과 2백여개의 호스피스가 교회와 사회사업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명이 존엄하기 때문에 누구나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읍니다。 죽음이란 새로운 삶으로 가는 길목이므로 보다 경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색하지 않게 이어나가는 그의 한국말엔 진지함이 충만하다。 그러나 아타까움이 서려있다。『불신과 분노、그리고 타협과 우울、마지막으로 순응의 정신적단계를 거쳐간다는 인간의 죽음을 마음의 문을 굳게닫고 맞는사람이 이나라에는 의외로 많다는 말없는 지적인지도 모른다。

【韓基泰기자】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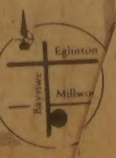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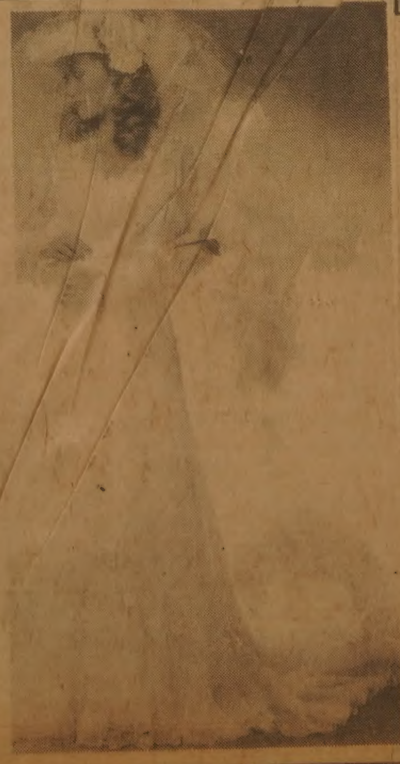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남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nton
☎ : 485-9419 488-1639



체조(뜀틀)서 李貞熙 첫 銅메달

李始恩 수영 자유형400m 銅추가로 기염

◇金메달을 목에 건 한국女弓士들
궁도여자 단체전서 우승한 한국선수들(왼쪽부터) 金美英 朴英淑 金珍浩가 금메달을 목에걸고 포즈를 취하고있다。 【뉴델리 신문공동취재단=聯合】

당초 女개인까지 金메달 셋목표
金珍浩 1점차로 金놓쳐 玉의티

아시아의 정상 = 한국 남녀弓道

한국남녀궁도가 아시아의 정상임이 이번 아시안게임을통해 재확인됐다.

한국양궁의 저력은 80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와 지난 7월 일본 오비히로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선수권대회서 종합우승을 하면서 확인되었고 이번대회 남녀단체전 우승으로 더욱확실해졌다.

그러나 지난 78년 방콕대회에이어 개인부문에서 2連覇를노리던 金珍浩(22·한국체육대)가 최종일 30m경기서 범실이겹쳐 북한의 오광순에게 1점차로 1위를 놓친것이 아까왔다.

한국은 당초 이번대회서 여자개인및 단체, 그리고 남자단체등 3개의 금메달을 목표로했었다.

북한의 실력도 만만치않았다. 지난대회때 한국에이어 3위에 머물렀던 북한은 지난 8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초청궁도대회때 중공과 일본등을꺾고 우승을 차지, 아시아의 강자로 부각됐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아시아의 궁도는 패권을 놓고 남북한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것으로 전망된다.

최연소선수는 北예멘의 8세, 인형안고 탁구에 출전
金珍浩, 北韓오광순 계속 리드하다 6발남기고 실수
比수상 며느리 紅一點 승마선수 연습하다 落馬부상

활시위 팔에걸려

◆…金珍浩는 북한의 오광순과 치열한 접전끝에 6발을 남기고 종합점수에서 2점을 리드, 78년 방콕대회에이어 개인부문 2연패를 이룩한듯 했으나 마지막순간 범실이 겹치는 불운으로 다 따놓은 금메달을 놓쳤다.

첫날 70m경기에서 3백4점의 좋지않은 점수로 3백20점의 오광순에 뒤졌던 金은 이어벌어진 60m경기에서 세계타이기록인 3백36점, 둘째날 50m경기에선 오광순을 14점이나 앞서는 3백19점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고 4점을 앞선가운데 30m경기의 마지막 6발에서 활시위가팔에 맞고 튀는 바람에 연거푸 8점과 7점을 쏘아 만점을 기록한 오광순에 1점차로아깝게 패했다.

弓道시상식 엉망

◆…궁도시상식에서 진행이 잘못돼 시상을 다시하는 난센스가 벌어졌다.

여자단체전에서 한국이 1위 북한이 2위를 차지했는데 태극기가 게양되는동안 애국가가 연주되지않고 행진곡이 흘러나왔는가하면 북한깃발은 3위 게양대에 올려졌다.

조직위는 북한이 즉각 항의하자 북한깃발을 내려 다시 2위 게양대에 올렸는데 10분뒤에있은 여자단체전 시상식땐 각국선수들로부터 메달을 회수, 시상식을 다시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또한 시상식은 4개종목에 무려 1시간30분이 소요된데 반해 각국가는 30초씩만연주됐다.

아시아水泳 서울서

◆…李明博대한수영연맹회장이 아시아수영연맹(ASF)총회에서 부회장으로 피선되었다. 李회장은 이날 부회장선출에서 북한의 반대에 부딪쳤으나 무기명 투표결과 찬성29 반대6 기권5로 중공, 인도와 함께 북한을 누르고 부회장에 피선됐다. 이날총회에서는 아시아수영선수권대회를 86년 서울에서, 88년 중공에서 각각 열기로했다.

北韓, 金따자 여유

◆…경기초반 여자개인단체전에서 선두를달리다 한국에 역전패당해 침통한 분위기에 싸여있던 북한은 막판에 金珍浩의 실수로 金메달을 차지하자 태도가돌변, 기자들질문에 선선히 응하는등 여유를 보였다.

여자개인종합우승의 오광순은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5위를 차지한 북한의 제1인자. 平壤체육대학 4년생으로 작년 폴란드에서열린 국제궁도대회에서 개인종합1위, 금년8월 北京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초청궁도대회때 역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組織委長 첫회견

◆…아시안 게임 조직위 위원장인 부타·싱씨는 22일 저녁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대회가 과거 어느때보다 규모나 시설, 경기운영면에서 훌륭했다고 평가하면서 사마란치 위원장등 IOC측에 1992년 뉴델리에서 올림픽을 개최할것을 비공식으로 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30분동안 진행된 이 회견은 그동안 쌓인 불만이 터져나와 기자회견이 불평토론장이 되고 말았다.

力道 금메달10개

◆…토머스·아얀국제역도연맹(IWF)사무총장은 22일 혼선을 빚고있는 제9회 아시안게임역도경기의 금메달수는 각체급에 1개씩 모두10개라고 유권해석. 그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각체급의 종합우승자에 1개씩의 금메달만 수여하기로 규정하고있으며 아시아경기연맹(AGF)도 이 규정을 따르고있다면서 10체급의 경기를 실시하고 있는 이번대회의 금메달수는 10개라고 말했다.

한국선수단에 관심

◆…자일·싱인도대통령은 22일하오 대통령관저에서 각국선수단단장, NOC간부, AGF집행위원및국제경기연맹(ISF) 아시아경기연맹(AGF) 임원들을 초청, 부페스타일로 만찬을 베풀었다.

얼굴에 멍투성이

◆…이번 대회의 승마경기에 여성선수로서는 단독출전한 필리핀의 마리엘라·비라타선수(20)는 세사르·비라타필리핀수상의 며느리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그녀는 22일 장애물연습경기에서 말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낙마, 얼굴이 온통 멍투성이가 되어 또한번 화제에 올랐다.

그녀는 그러나 큰부상도입지않았고 컨디션도 좋다면서 23일 경기에 예정대로출전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經費 2천1백만불

◆…뉴델리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데는 약2천1백만달러가 들었다고 인도재무성이 발표.

그러나 이같은 액수는 순수한 경기시설에만 소요된것으로서 고가도로를 포함한 도로공사와 호텔신축등 정부개발기금으로 충당된것까지 따지면 총경비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살때 탁구시작

◆…이번대회의 최연소선수는 北예멘의 모하메드·알사라비양으로서 올해나이 겨우 8살.

이 선수는 연습차 경기장에 나올때도 탁구라켓과함께 인형을 들고나와 웃음을자아냈었다.

5살때부터 탁구를 시작했다는 이 꼬마선수는 26일 자신의 첫경기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토로.

VIP대우 사양

◆…인디라·간디印度수상이 제9회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각 경기장을 둘러보면서 VIP(귀빈) 대우를 사양하고 전용승용차대신 일반버스를 이용, 관계자들을 놀라게했다.

간디수상은 이날 아들라지브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각 경기장을 순방했는데 자신의 승용차대신 일반버스를 이용했으며 VIP출입구대신에 일반출입구를 사용.

射擊聯 規定수정

◆…아시아 사격연맹(ASC)은 이번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되는 사격대회를 보다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 연맹규정을 수정했다. 【이상신문공동취재단】

◇北韓의 추태…이대로 좋은가 북한은 언제까지 이같은 추태를 보일까。 궁도여자단체전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우승한 한국선수들(중앙)이 경례를 하는동안 준우승을 차지한 북한선수들(左)이 고개를 돌려 외면,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취했다。 【뉴델리AP電送=聯合】

탁구 個人戰 모두 2회전進出
사격 소구경복사 銅·水泳5명 예선통과

제9회 아시안게임 5일째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 한국의 李貞熙(청주여고)는 23일 인드라 프라스타체육관서 열린 여자개인전 뜀틀에서 19·250점을 얻어 체조 경기에서 첫동메달을 차지 했다. 中共의 리퀴린은 19·525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북한의 최종실은 19·00을 마크, 4위에 머물렀다.

이날 스포츠홀에서 일제히 시작된 탁구개인전에서 한국은 남자복식2팀과 여자복식 1팀이 서전을 장식, 각각 2회전에 나섰다.

이날 한국의 金琦澤 金浣조는 사우디의 이브라힘·반다르조를 3-0으로, 朴利熙·尹吉重조는 파키스탄의 아리구 자부드조를 역시 3-0으로 가볍게 제치고 2회전에 나섰으며, 여자복식에서도 梁英子 安海淑조가 인도네시아 선수들을 3-0으로 눌러 2회전에 올랐다.

수영여자자유형 4백m 결승서 李始恩은 4분34초02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郭定勳선수등 활약

22일 프라카마드 사격장에서 벌어진 소구경 복사에서 한국은 郭定勳(590점) 尹德夏 徐長寶(이상 589점) 朴榮信(587점)이활약, 2천3백56점으로 3위를 차지, 銅메달1개를 추가했다.

이날 몽고는 예상을 뒤엎고 2천3백63점으로 단체서 우승했으며 개인전에서는 일본의 오가와(595점)가 1위를 차지했다.

方駿榮등 각조1位

남녀 수영5개종목 예선에 출전한 한국은 인어자매 崔允庭 崔允喜가 여자 배영 2백m서 日本을 누르고 각조 1위로 결선에 오른것을 비롯, 여자자유형 4백m의 李始恩, 접영2백m의 金岭希, 남자배영2백m의 李忠原, 남자접영2백m의 方駿榮이 모두예선을 통과했다.

崔자매 예선도 1·2位
李龍求 亞洲新세우고 탈락

계체량서 밀려나

한국의 李龍求는 역도 60㎏급에 출전, 용상에서 1백62·5㎏의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으나 메달을가리는 총계에서 中共선수와 같은 2백75㎏을 기록, 계체량에서 메달권 밖으로 밀려나 4위에 그쳤다.

中共벽 또 못뚫어

남북대결서 승리한 한국탁구는 여자가 銀메달, 남자가 銅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여자팀은 22일 스포츠홀에서 벌어진 결승리그 최종전에서 중공의 두터운벽을 허물지 못하고 1-3으로패해 6승1패로 전대회에이어 다시 銀메달에 머물렀다.

男하키 메달권탈락

한국하키여자팀은 印度에 5-1로져 6개팀 리그서 1승1무1패를 기록했다.

남자팀은 예선A조서 월드컵챔피언 파키스탄에 10-0으로 패배, 2승2패로 탈락했다.

골프, 종합2位달려

22일 현재 2라운드경기를 마친 골프는 한국이 단체전서 445타를 기록, 442타의 선두 印度와 3타차로 2위를 달리고있다. 개인전에서는 金丙勳이 148타로공동4위를 마크하고있다.

女배구, 中共에完敗

한국여자배구는 22일 풀리그 첫날경기서 선전했으나 세계제1의 공격수郎平과 세터孫晋芳이 활약한 中共에 역부족, 0-3으로 완패했다.

테니스, 4강진출

테니스는 여자단체전서 4강전에 오른데이어 남자팀도 준준결승서 파키스탄을 2-0으로제압하고 4강에진출, 印尼와 결승진출권을 겨루게됐다.

◇24일 한국경기 (한국시간)

▲핸드볼 한국—사우디 (17시30분)
▲여자하키 한국—홍콩 (18시30분)
▲탁구 남녀개인 단복식및 혼합복식 (12시)
▲사이클 1천m스프린트·金永洙·崔炳昌 (12시30분) 4천m개인추발 결승·金桂鍚 (17시10분)
▲골프 개인및 단체 최종라운드 (10시30분)
▲수영 평영1백m·千仁泰·權于禎 (10시30분) 자유형 8백m·李始恩 (17시)
▲사격 스탠다드소총3자세·權宅烈·朴榮信·郭定勳·金準永 트랩·李碩雨·李文鎬·朴哲承·林大興 (이상 12시30분)
▲역도 75㎏급 金基雄 (18시)
▲조정 준결승전 (13시)

배구
▲여자리그
중공 3 (15-6 15-8 15-4) 0 한국

궁도
▲남자단체종합 ①한국 3、728 ②인도네시아 3、711 ③중공3、702
▲동여자 ①한국3、853 ②북한 3、800 ③중공3、731
▲남자개인종합 ①야마모또·히로시(일본) 1、283 ②金永雲(한국) 1、275 ③마쓰시다·다까요시(일본) 1、275 (2、3위골드수차)
▲동여자 ①오광순(북한) 1、295 ②金珍浩(한국) 1、294 ③金美英(한국) 1、283

사격
▲소구경복사단체전 ①몽고(2、363) ②일본(2、362) ③한국(2、356)
▲동개인전 ①오가와(일본) 595 ②강서리구(몽고) 594 ③호세(필리핀) 593

탁구
▲여자결선리그
중공 3-1 한국
齊燕華 2 (21-10 16-21 21-18) 1 梁英子
童玲 2 (21-10 21-14) 0 尹璟美
齊燕華·戴莉莉 1 (19-21 21-12 21-23) 2 梁英子·尹璟美
齊燕華 2 (21-13 21-12) 0 尹璟美
▲남자개인복식1회전
金琦澤·金浣(한국) 3-0 이브라힘·반다르(사우디)
朴利熙·尹吉重(한국) 3-0 아리구·자부드(파키스탄)
▲동여자1회전
梁英子·安海淑(한국) 3-0 윈나르니·에비(인도네시아)

하키
▲여자3차전
인도 1-5 한국
(3승) (1승1무1패)
▲남자4차전
파키스탄 10-0 한국 (2승2패)

테니스
▲남자단체준준결승
한국 2-0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2-0 필리핀
중공 2-0 일본
인도 2-0 태국

체조
▲남자개인종합=①리닝(중공) 117·25점 ②통페이(중공) 117·15점 ③이철훈(북한) 116·9점
▲여자개인종합=①첸용양(중공) 78·20 ②우지아니(중공) 78·05 ③최정실(북한) 77·45
▲여자뜀틀=①리퀴린(중공) 19·525점 ②첸용안(중공) 19·350점 ③李貞熙(한국) 19·250점 ④최종실(북한) 19·0점
▲여자이단평행봉=①우지아니(중공) 19·80점 ②이정애·최종실(이상북한) 19·75점
▲여자평균대=①위·지아유니(중공) 19·80 ②마시앙(중공) 19·30 ③마이꼬·모리노(일본) 19·20 ④鄭鎭愛(한국) 19·10

수영
▲여자배영2백m=①崔允喜(한국) 2분21초96(아시아신기록) ②崔允庭(한국) 2분22초85 ③아세리·히사에(일본) 2분27초36

역도
▲60㎏급 ①쥔 웨이 장(중공) 282.5㎏ ②이희봉(북한) 277.5㎏ ③탄 한용(중공) 275㎏ ④李龍求(한국) 275㎏ (3、4위체중차)

골프
◇1、2라운드 합계
▲단체전 ①인도 442(223、219) ②한국 445(224、221) ③일본 449(219、230)

◇각국메달수 (23일하오7시현재)

	금	은	동
①일본	12	8	7
②중공	11	11	7
③한국	4	5	6
④북한	2	7	5
⑤인도	2	1	1
⑥필리핀	1	1	2
⑦몽고	1	1	0
⑧인니	0	1	2
⑨이란	0	0	1

◇李貞熙의 깜찍한 연기 체조종목에서 한국에 첫메달을 안겨준 李貞熙가 이단평행봉에서 깜찍한연기를 보이고있다。 【뉴델리23일신문공동취재단電送=聯合】

해설 — 사이클경기종목

사이클경기는 도로부문을 제외하고는 벨로드롬이란 전용경기장에서 벌어진다. 벨로드롬은 주장(긴길이) 3백33·3m, 폭9m의 타원형으로 직주로의 경사는 15도, 곡주로(코너부분)는 45도로 깊숙한 사발형태의 경기장이다. 바닥은 콘크리트 혹은 나무로 되어있다.

▲1천m스프린트=2~3명의 선수가 벨로드롬을 3바퀴돌아 가장 먼저 골인하는 선수가 1위를 차지한다. 추첨에 의해 가장 안쪽 코스주자는 첫바퀴를 돌동안 의무적으로 선두에 서 달려야 한다. 두바퀴째부터는 공기저항을 덜받기 위해 서로 선두에 서지 않으려고 견제하다가 최종2백여m를 앞두고 전력질주하게 된다.

▲1천m 독주(타임·트라이얼)=한명씩 경기에 참가한다. 3바퀴를돌아서 나온 기록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경기도중 타이어가 파손되거나 넘어질경우 재경기를 할수있다.

▲4천m개인추발=두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 한명은 벨로드롬을반분한 홈스트레치(본부석쪽)에서 다른한명은 반대쪽 백스트레치에서 동시에 출발한다. 12바퀴를 도는동안 한선수가 추월당하면 추월패를당해 경기가 끝난다. 그러나 추월당하지 않을경우 시간으로 승자와 패자를가리게된다.

▲4천m 단체추발=두팀이 출전하는데 한팀은4명씩으로 구성된다. A팀의 3위선수가 B팀3위선수를 추월할경우 추월승을 거두게된다. 추월승이 일어나지 않았을경우 양팀3위끼리의 골인시간으로 승패를 정한다.

▲50㎞포인트경기=여러명의 선수들이 동시에 같이 출발한다. 다섯 바퀴째마다 순위를 체크, 1위선수는 5점, 2위선수3점, 3위는 2점, 4위는 1점씩을 얻게되는데 마지막 50㎞까지 이점수를 합계, 최다득점선수가 우승을 차지한다. 기록은 참고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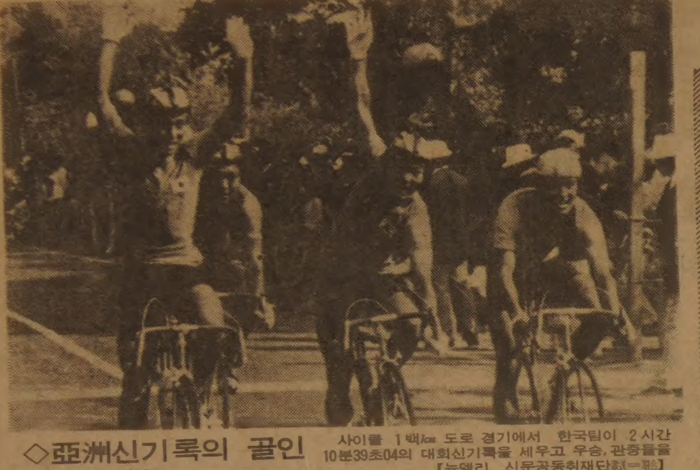
<11월22일 (월)부터 공연시작>

동남아지역·유럽을 거쳐 북미주로는 처음 오리엔탈 파레스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읍니다.

바쁘신중에도 친지와 가족동반하셔서 회포를 푸시기 바랍니다.

한국현대무용단 뉴 서울 공연

529 BLOOR ST. WEST
TORONTO, ONT.
예약전화 533-1500



◇亞洲신기록의 골인　사이클 1백㎞ 도로 경기에서 한국팀이 2시간 10분39초04의 대회신기록을 세우고 우승, 관중들을 향해 손을 들고 있다。【뉴델리 신문공동취재단=聯合】

實名制 86년이후 전면實施

民正、修正案마련 오늘 國會제출

電算化준비·經濟여건 감안 구체적 時期 대통령令으로

民正黨은 금융實名去來制를 오는 86년이후부터 전면실시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電算化등 행정준비가 완료된후 경제與件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實名制수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한다. 民正黨은 22일 상·하오 黨職者회의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實名化 ... 1일이후부터는 無記名 假名 금융소득에 ... 의 差等세율을 부과키로했다.

◇22일하오 국회에서열린 民正黨 임시中央執行委는 그동안 홍역을치러온 實名制修正案을 마련했다.

假名이자소득 내년7월이후 實名보다 5%差等

民正黨은 이에따라 實名예금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 무기명 가명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15%의 差等세율을 적용하는 修正案을 마련, 국회 재무위 稅法심사 小委에 제출하여 소득세법개정안 심의때 처리할 예정이다.

民正黨은 또 85년1월1일 이후부터는 無記名·假名금융소득에 대해 實名보다 10% 높은 차등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 수정안은 또 83년1월1일 이전의 무기명 가명 금융資産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82년말까지 短資, 상호信用金庫의 설립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키로한 정부안을 그대로 채택했다.

民正黨은 수정안에 ▲법안 제1조 目的조항에 實名化촉진내용을 상세히규정하고 ▲83년1월1일 이후부터 實名預積金에 대한 장려조치를 명시키로했다.

民正黨이 금융實名거래법안을 이번회기내에 통과, 내년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함에따라 현재의 預積金비밀보장법은 83년 1월1일부터 폐지케된다.

이날 中執委가 끝난후 金琫泰대변인은 『86년 1월1일 이후부터 實名制의 전면시행시기를 검토하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86년 1월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증정비, 電算化등 행정준비가 갖춰질것으로 보며 법안에 행정준비작업규정등을 명시케될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초에는 實名制 시행시기를 국회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었으나 국회동의가 법체계상문제가있어 대통령령에 시행시기를 위임했다』고 말했다.

民韓 크게反撥

民正黨측이 22일 발표한 實名制修正案에 대해 民韓黨측이 크게 반대하고 있어 實名制修正案은 국회 재무위에서 큰 논란을 빚을것 같다.

民韓黨의 林鍾基총무는 『86년 이후 ... 』라고 주장하고 『民韓黨은 ... 』 ...

民正 全黨대회 延期

民正黨은 22일하오 中執委를열고 黨憲上 내년1월15일 열기로되어있는 全黨大會를 연기키로 결정했다.

中執委는 이날 權翊鉉사무총장의 제의로 이같이결정하고 全黨大會개최시기는 내년 상반기중 적당한 일자를잡아 대표위원이 결정토록 일임했다.

金琫泰대변인은 全黨大會 연기이유에대해 『오는 12월 18일 국회가 끝나고 곧이어 韓日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열리는등 시간적여유가 없는데다 酷寒期와 年末年始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歲出 1천억削減키로

民韓결정 赤字國債발행 올水準으로

民韓黨은 22일 총규모 10兆5천1백70억원의 정부제출 새해예산중 歲出부문에서 최소한 1%에 해당하는 1천9억6천3백만원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民韓黨은 이날상오 黨소속 豫決特委와 院內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歲入부문에서는 稅法개정에따른 稅收의 減額분을 세출부문의 삭감액에다 추가시키기로 결정했다.

民韓黨이 이날결정한 歲出부문의 삭감內譯을 보면 物件費중 일반 需用費 6천억7천4백만원의 3%에 해당하는 1백40억원을 삭감하는것을 비롯, 판공비 1백억원, 번역... 損金77억원, 처우개선비 70억원등 공통사항에 속하는 7백84억원을 삭감키로했다.

金銘圭 정책심의회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이 增稅와 적자國債를 함께택한 것으로써 재정사상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만큼 예산규모를 균형 예산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소비성 경비를 최대한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民韓黨은 ▲내년도의 赤字國債 발행규모를 금년도 수준(3천5백억원)으로 凍結하고 ▲增稅에의해 赤字규모를 상쇄하려는 稅率의 추가인상등 稅制상의 조치는 不許하며 ▲內國稅규모도 정부제출예산액보다 증액할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資源관리 法案 정부는 撤回를 民韓 院內대책회의

民韓黨은 22일 상오 院內대책회의를 열고 資源관리법안에 대해 정부 스스로 이 법안을 철회해야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재확인한후 立法의 필요성이 있다면 毒素조항을 제거한후 새로운 법안을 제출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또 이번 국회에서 국회법, 지방자치제법, 학생운동규제법안 등 계류중인 정치의안의 처리문제를 논의, 『이미 개정의 필요성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

해설 5개월만에 原點회귀

... 6월23일 『기업건실화및경제 稅制改善』이라 ... 금융實名거래실명화 ... 전면시행하는 방안은 ... 충격을완화하기위해 ...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스케줄을 제시했다. ...

사이클서 첫 金메달

아시안게임 남녀卓球는 北韓꺾어

【뉴델리=한국신문공동취재단】한국 사이클이 제9회아시안게임서 첫금메달을 따냈다. 또 탁구남북대결에서 남녀 모두 풀게임의 숨막히는 대접전끝에 승리, 개가를 올렸다.

한국 사이클 선수단은 21일 하오 열린 1백㎞ 도로 단체경기서 2시간10분39초04의 대회신기록으로 우승,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한국팀은 金鐵石 張允鎬 李鍾玉 金炳善 네선수가 출전, 2위 日本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21일저녁 뉴델리 스포츠홀에서 열린 여자탁구 남북대결 단체전에서는 尹瓊美의 분전으로 3-2로 승리, 20일밤 남자팀의 승리에 이어 2번째 개가를 올렸다.

수영 여자개인혼영 4백m 결승에서 李始姬이 銅메달을 따냈다.

사이클 選手團에 全대통령이 祝電

全斗煥대통령은 22일 아시안경기대회 사이클 1백㎞도로단체경기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고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사이클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내 치하 격려했다.

獨立紀念館건립 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22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三石建業(株) 대표이사 李鍘周씨외 임직원一同=1백26만7천4백60원

▲在獨함부르크교민一同=서독貨3천7백60마르크【김형용씨=1천마르크, 함부르크 무역인협회 회장외회원=1천5백〃, 대한선주 함부르크지사 직원=1백〃, 곽태원씨=1백〃, 한국일보 함부르크지국 김광남씨=1백〃, 박종우씨외 선니 이사벨선미=美貨1백달러, 송청호씨=50마르크, 이윤규씨=50〃, 김홍민씨=50〃, 정동철씨=50〃, 김정삼씨=35〃, 박태열씨=30〃, 장세훈씨=20〃, 우의하씨=20〃, 이철우씨=20〃, 정병전씨=20〃, 백미화씨=20〃, 이원방씨=20〃, 獨逸人4명=40〃, 터키인2명=35〃, 김한문씨, 강종교씨, 김정용씨, 김관식씨, 김경순씨, 익명의독자, 박종식씨, 서충원씨, 김남훈씨, 선재수씨, 한규만씨, 김명숙씨, 곽용구씨, 김동환씨, 박현숙씨, 김형수씨, 이경종씨, 서동훈씨, 김병문씨, 김석현씨, 성진영씨, 허재열씨, 강일남씨, 이영기씨, 민혜숙씨, 문진광씨, 이종팔씨=2백70마르크(各10마르크씩)】

▲서울(株)바른손 代表理事 李隆康씨外任職員一同=30만3천5백50원

▲소년한국수원지구 비둘기기자단一同=11만4천원【소년한국접수】

▲강남구서초2동6통주민一同=7만1천원【양재보급소접수】

▲강남구서초2동7통주민一同=6만3천8백원【〃】

▲東大門區典農1洞21통장 이석구씨외주민一同=5만2...

▲충남서천청년회의소야학부교사및학생一同=1만3백원【서천지국접수】

▲충남부여군내산면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천보교회=1만원【內山지국접수】

三石建業(株) 李鍘周대표外 1백26만원

함부르크 교민一同 3천마르크

서울(株) 바른손 30만원

수원 비둘기 기자단 11만원

稅法심사 계속難航

財務委 막바지 陣痛

所得·法人·附價稅등 各黨 異見

국회財務委稅法심사 小委(위원장 金鍾仁의원)는 22일 所得稅法 개정안등 3개稅法 심사를 벌였으나 ▲所得稅기초공제액 인상 ▲法人稅率조정 ▲부가세율조정문제등에 각黨간의 異見이 크게 맞서 의견접근을 보지못했다.

小委는 당초 지난 20일까지 稅法심사를 마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조정지연으로 오는 24일 이후에나 稅法案에 대한 일괄타결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이날 小委에서 民正黨은 정부의 稅法案중 소득세법의 최고세율을 다소 上向조정하더라도 기타 세율 구조및 각종 공제액에 대해서는 큰 손질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데 반해 民韓黨은 현행 人的공제액중 기초공제액(年30만원)은 배우자공제액(年42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이는 稅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공제액을 年66만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年48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民正黨은 기초공제액을 1만원정도 인상하는 경우 稅收減이 7백억원에 이르는등 稅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때문에 기초공제액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대했다.

地平線

미국 마이애미의 한 무기업자가 만든 KG 9라는 권총은 플래스틱으로 가볍게만든 고성능의 반자동식 권총이다. 게다가 간단한 조작으로 이 권총은 몇초안에 기관단총으로 바뀌도록 되어있다. ... [illegibl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90

구독신청 배달사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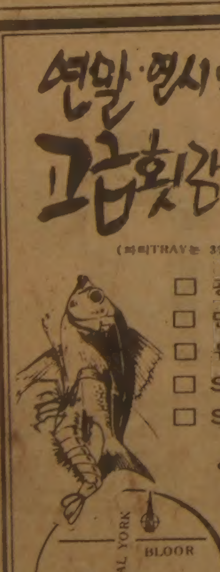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연말·연시 및 각종파티 고급횟감을 마련해 드립니다.
(파티TRAY는 3일전에 예약을 해 주십시오.)
□ 광어
□ 민어
□ 튜나
□ STRIPPED BASS
□ SEA BASS
얼지않은 김장용
ㅁ생동태
ㅁ생새우
ㅁ물오징어
영업시간 :
화·수·토 — 오전9시~오후6시
목·금 — 오전9시~오후8시
일·월 — 휴무



K&R Sea Food
765 THE QUEENSWAY
☎259-1585

FLORIDA 2BD. FM. BUNGALOW
$27,900
NEA CLEARWATER !!

-20 DOWN
-ACRE LOT INCLUDED
-CTRAL AIR & HEATING
-SONRY CONSTRUCTION
-MIN. TO BEACH & GOLF
HR. TO DISNEY WORLD
MANY OTHER WORLD FAMOUS ATTRACTIONS NEARBY
HOME INSPECTON TOUR AVAILABLE
RECOMMEND AS A PROPERTY INVESTMENT !
RENTAL & MAINTENANCE PROGRAM AVAILABLE
RENTAL INCOME OFFSETS MORTGAGE PAYMENT
FOR MORE DETAILS, PLEASE CONTACT ;
Tel 243-0522(To 2PM) 661-3124(After 2PM)
PETER YLEE, P.EN(이영용) BUK S. CHANG, P.(장북섭) KYU-YUL, CHO(조규열)
DONG-CHIN, KIM(김동진) YOUNG-WON, AHN(안영운) YONG-CHIL, KWON(권용칠)
SANG ROCK INC./SPRING WOOD PROPERTIES INC.
3461 Dixie Rd. Suite 503 Mississauga ☎ : 629-1242 9 : 00AM~9 : 00PM

스타
미용실
동부영업
11월15일 (월)부터
예약전화
741-4410(평일)
267-0333(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저희 스타미용실을 많이 애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11월15일(월) 부터 동부 한국식품 플라자내 2800 Eglinton Ave. E. 에서 매주 월요일 영업하게 되오니 동부에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동부영업시간 : 오전10시~오후7시 2800 Eglinton Ave. E. (동부한국식품 플라자내)
※동부 예약은 미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영업시간 : 화요일~토요일 오전9시~오후8시 2437 Finch Ave. W.

安炳璨특파원 베카盆地 발베크PLO캠프를 가다

베이루트서 89㎞… 겹겹의 바리케이드
銃聲속 30개검문소 거쳐

PLO간부 "무얼 알려고 여기왔나" 面談중 밖에선 콩볶듯 空砲 소리가…

女게릴라도 목격… 베카의 PLO戰鬪力은 1만명線

베이루트 동쪽 25㎞의 소파르읍(해발1천3백m)이 이스라엘군과 시리아군의 대치선이다. 상오8시 소파르읍 동쪽끝에있는 이스라엘군 바리케이드의 검문소를 통과했다. 방탄조끼를입고 M16을 거머쥔 이스라엘군인들은 검문을 마치자 『돌아올 때는 허가를 받아야한다』며 굳은 [illegible]

[illegible]의 탄창과 수류탄을 앞가슴에 잔뜩매단 시리아군인들이 간단한 검문후 굳은 얼굴로 통과하라고 했다. 긴 양편과 산허리에 20여개의 시리아군 바리케이드가 방어선을 구축해 놓아 분위기는 팽팽했다. 바르·엘·바이다르 고개(해발 1천7백58m)를 넘어 드넓은 베카분지의 발베크에 [illegible] 레바논-시리아군 합동검문소 3개소를 통과했다.

1천1백50m의 고원도시 발베크는 PLO및 시리아군의 주요 거점이다. 市 동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촌에 PLO 조직은 베카동부지구위원회, PLO경제국파견대, PFLP,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안에서 인민위원회, PLO 경제국파견대, PFLP PFLP구호협회, 알·사이카 책임자들을만나고 난민구호식량창고, 소련제 대포, PLO무장병사, PFLP여자게릴라등을촬영했다.

PLO 무장병 아델·달롤(17)이 식량창고옆에 있는 인민위원회사무실로 안내했다. AK자동 소총을 든 아델·달롤은 블루·진과 파커·점퍼를입고 국방색농구화를 신었다. 위원회 사무실의 PLO간부가 『누가 보냈느냐. 무엇을 알러 왔느냐』고 미심쩍게 질문하며 레바논공보성 발행의 프레스·카드를 검사한후 『15분쯤 기다리라』고 했다.

야세르·아라파트의 대형걸러초상과, 적·녹색, 백색, 흑색의 PLO旗가 걸려 있었다. PLO다마스커스 본부가 2주일전 파견했다는 팔레스타인 민족기금의 아부·페라즈(45)는 책상앞에 앉아 팔레스타인難民면담을 확인하고 구호금과 식량을 배급하는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도 소총 한자루. 배급받으러온 7, 8명의 난민이 대기중이었다. 파커를 입은 건장한 간부 마웨드 『우리 추산으로 팔레스타인 [illegible] 국적 난민은 수용소에 2천명, 베카지역에 1만7천명쯤 된다』 가족상황에따라 1천3백파운드에서 최고 2천2백50파운드까지 구호금을 지급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기자일행을 거듭 확인한후 사진촬영을 허가했다. 안내했던 PLO병사 아델·달롤과 위원회 경비병 함단(19)을 찍고, 아부·페라즈가 노파에게 2천 레바논 파운드(5백달러)를 주는 장면을 찍었다.

마웨드는 이스라엘 침공후 베카로 피난한 난민을 지원하기위해 다마스커스 PLO 경제국이 파견한 5명의 간부중 하나라고 했다.

[illegible] (30)가 들어왔다. 검은 곱슬머리에 검은 눈썹을한 그가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코리아다』『데모크라틱 코리아냐』『리퍼블릭 코리아다』 [illegible]

의약품실 엉망 진료실에는 미남의사 휘린·하즈·알리(28)가 슬픈 얼굴로 앉아있다. 그는 8월에 베이루트를 벗어나 남예멘, 시리아를 거쳐 한달전 베카에 파견되었다고 했다. 『그의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들은 9월의 차틸라 캠프 학살때 무사했다』고 마웨드가 말했다.

그의 얼굴이 더욱 수심에 잠겨보인다.

『하루의난민 진료는?』
『30~40명이다』
『무슨 병인가』
『인플루엔자, 앨러지, 간장병, 기침이다』
『간호원은?』
『8명이다』

그는 베이루트의 아메리칸 대학을졸업한 의사출신인 PFLP의장조지·하바시 조직이 파견한 의사다.

마웨드는 PFLP본부로 이끌고 갔다. 분위기가 일변한다. 사무실 입구에는 PFLP의 여자게릴라대원 2명을 포함한 7·8명이 국방색 군복을 입고 앉아있었다.

책임자인무사라하마는 검은 점퍼에 블루진을 입은 30代의 건장한 사나이. 벽면에는 쿠바의 체·게바라, 시리아의 하페즈 하페즈대통령, 그리고 레바논의 진보사회당 당수 줌블라트(己故)의 사진, 빨간 별이 들어있는 PFLP깃발도 걸려있다.

무사라하마는 병력수는 말할수없다면서마르크스주의적 선전을 했다.

『하비브 대표는 이스라엘, 과 제마옐에 기울고 팔레스타인해방을 반대한다. 팔레스타인이 베이루트를떠난후 일부 아랍국은 팔레스타인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PLO의 정치군사지부는 베카전투 [illegible]

[illegible] 소파읍의 이스라엘 최전방 [illegible]

발베크에서는 21일아침 레바논좌익시아회교민병대5백명이 레바논공부청사를 강점 [illegible]

【발베크(베카분지) PLO캠프22日=安炳璨특파원】

◇발베크로 向하는 베이루트路 베이루트市를 가로지르고있는 도로. 그리고 그위에서 파괴된 곳곳을 보수하고있는 [illegible] 安특파원은 발베크에서의 시어派회교반도「市廳강점사태」가 끝난뒤 곧바로 소파읍을 출발, 발베크까지의 89㎞를 14시간만에통과하면서 서로다른 국적의 軍검문소에 들러 현지의 표정을 취재했다.

◇이·시리아軍對峙

實名制 새局面에
民正의 修正案마련 背景

民正黨이 苦心끝에 22일 實名制修正案을 확정, 마련한것은 길게는 언젠가는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黨政간의 意志구현이며 가깝게는 修正案제출약속을 지킴으로써 막바지국회의 예산안과 稅法案의 원활한 심의를 촉진하려는데 목적을 둔것으로 풀이된다.

民正黨은 이번국회에서 정부가 불쑥제출한 實名制를 事前에대폭修正에 이어 [illegible] 사실상保留 연기하는 [illegible] 다 야당으로부터 『먼저 實名制의 眞意를 밝혀라』는 요구로 국회재무위가 10여일간 空轉되는 홍역을 치렀고 그후에도 修正案의 제출여부는 與野간의 논란거리로 부각되어 왔었다.

국회 豫決委가 計數조정에 들어가고 財務委의 稅法심의가 본격적으로 무르익어가는 마당에서 뒤늦게나마 民正黨이 최종결론을내리지 않을수 없었던것은 예산국회를 法定時限에 맞춰 운영하지 않을수 없는 긴박한 사정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民韓黨은 만일 民正黨이 稅法의 代案을 내놓지않으면 심의에 응할수 없다는 강경방침을 제시했기때문에 정부안을 토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illegible] 稅法협상을 진행하려던 民正黨은 實名制의 代案제시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것이다. [illegible]

稅法협상 突破口로
촛점은 실시時機에

[illegible] 절차를 밟았다. [illegible] 만해도 국회146호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되어 있어 각의원들에게 통고까지 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상임위원장회의로 代替했다. 實名制가 워낙 큰문제이기때문에 의원총회라는 절차를 거쳐야한다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계획되었으나 야당을 자극할지도모른다는 우려가 있고 많이 모이면 의견百出로 [illegible]

[illegible] 실시에 따르는 현실與件 또한 무시할수 없는 進退兩難의 고민이 [illegible] 名制연기를 결정했을 당시 [illegible]

그대로 수락할것같지는 않다. 그러나 民正黨은 이번 회기내 통과를 고집하고있어 實名制波動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진통을 겪게될것 같다.

【黃昭雄기자】

메아리
共犯者

게임에는 어느 것이나 해프닝이랄까 異變이랄까 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관중들이 구경을 해서 재미나는것도 가끔 이런 非正常이 끼이기 때문이다。 권투도 구경거리인 이상 마찬가지다。 최근만 해도 유럽 여러곳에서 異常試合들이 있었다。

지난 10월12일 런던의 앨버트 홀에서는 슈퍼 라이트급의 유럽타이틀전이 열렸다. 선수권자인 영국의 클린턴·매킨지는 도전자인 스페인의 프란시스코·[illegible]몬선수가 기권을 하는바람에 [illegible] 프랑스의 로베르토·[illegible]와 대전하게 되었다. 2라운드에 들어서자 프랑스선수는 캔버스에 쓰러졌다. 카운트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선수가 정신을 차리고 부시시 일어서보니 그는 유럽 챔피언이 되어있었다. 전챔피언은 상대방의 배꼽아래를 때렸다하여 실격판정이 내려졌던 것이다。

지난10월28일이탈리아의 루이지·민첼로선수는 슈퍼 웰터급 유럽선수권을 판정으로 방어했다. 그런데 그 도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마리안·베네스선수는 애꾸눈이었다. 그는 눈의 網膜수술을 세번이나 해서 왼쪽눈이 3분의 1밖에 안보이는 선수였다. 그런데도 그의 눈을 수술한 의사의 허락을받고 유럽권투협회가 인정하여 시합이 이루어졌다。 관중들은 이 애꾸눈을 링위에 올려놓고 즐거워한것이다。

지난11월6일에 스페인의 레온에서열린 슈퍼 페더급 유럽타이틀전에서는 이런일도 있었다. 챔피언인 [illegible]릴레·다비[illegible]선수가 스페인의 도전자 로베르토·카스타뇬을 맞아 고전을 했다. 9라운드에 들어서자 챔피언은두번째로 다운되었다. 심판이 카운트를하고있는데 수건이 링위에 던져졌다. 카운트를 끝까지할것없이 도전자의 KO勝판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알고보니그 수건은 챔피언의 세컨드가 던진것이아니라 도전자의 코너에서 챔피언의 고통을 덜어주기위해 던진 것이었다。

金得九선수의 경우도 한가지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다. 싸우다 목숨까지잃은것을 해프닝으로 치부하는것은 경솔하다 하겠으나 非正常이라는 뜻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재미이기에는 너무나 비통한 異變이다. 차라리 [illegible] 수건을 [illegible] 세컨[illegible]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더 큰 變故를 면할수 있었겠다 싶기까지 하다.

金得九선수의 유해가 귀국하여 어제 장례식을올림으로써 이불상사는 일단종결의 국면이 갔았다. 실로 지난 한주일은 金得九週間이었다. 온국내가 金得九에대한 화제로 시끄러웠다. 어느영웅의 죽음이 이처럼 연일 떠들썩할수있었던가. 그를묻었으니 이제 우리가 과연 그의죽음을 正視했는가를 돌아봐야생각해야 할때다.

金得九의죽음은 권투의관중인 우리모두가 共犯者라할수있다。 권투구경을하면서 링위에다운되는 선수의 무참한[illegible]을 기다리지 않는사람이 있었은가. [illegible] 흐르고있다. 링위에 쓰러지기만을 기대했지 죽기까지를 누가바라느냐고하겠지만 죽기도할수있다는 기대 가능성이없으면 나무가 하나넘어지는것보다 더구경거리일것도없다. 지금 당장 우리협관에서 사람의 피를 몽땅뽑아내자는 말이아니다. 자기가 가해자편에 가담해놓고 피해자가 죽고나니 자기는 아무런 [illegible] 흔들림이 없지않았느냐는 말이다.

더러는 어째서 우리가 共犯者냐고 할는지 모른다. 한 권투선수가 링에서의 사고로 죽는것은 한가지 「職業病」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근대복싱의 시작이후 3백명이상이 그렇게 죽었다니 그렇게 말할수도 있다. 그것이 職業病이라면 권투선수의 죽음을 애통은 할망정 劇化할 것은 없다.

우리에게는 어떤 죽음에 자칫 격하기 쉽고 流我하기쉬운 人情이 있다. 이것이 때로는 약점도 된다. 장래가 기대되던 한 젊은 권투선수의 링에서의죽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해야 하지만 한권투선수에 맞는격식과 예우로 弔意를 표해야할것이다. 국민적으로 애도한다는것이 혹여 「권투선수는 링위에서 죽으면 영웅이 된다」는 인식을 남게되면 제2, 제3의 희생자를 장려하는 결과가 되지않을까 두렵다. 권투선수마다 링위에서 죽기를 바라는 관중심리의 표현이라는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共犯者라는 누명을 벗지못하게된다.

金聖佑
<編輯委員>

◇美國版 불가사리… 美텍사스州 포트워즈국 야생동물공원의 하마한마리가 배고픔을 참지못하는듯 관광객이 타고들어온 승용차의 지붕을 물어뜯으려하고있다. 관광객들은 승용차를 탄채로 이동동물원에들어가 몰어 [illegible]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수도있다고. 【포트워즈(美텍사스州) 21일AP=聯合】

海外토픽

印 호화호텔 물색
★쿠웨이트, 선수촌싫어

제9회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오일부국 쿠웨이트는 주최국 인도가 제공한 선수촌을 마다하고 봄베이의 호화호텔들을얻어 비행기3대를 전세내 매일 뉴델리를 왕복하면서 원정경기를 하려하고있다고.

뉴델리의 한신문은 쿠웨이트팀이 선수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봄베이의 『별다섯개』짜리 호텔을얻도록 허용해줄것을요구했다고 보도했는데 쿠웨이트팀이 봄베이로 정말 옮겨갈는지는 아직밝혀지지않고있다는것.

같은산유국인 사우디도 보다 안락한 환경을 찾아 선수촌입촌을 거부했다고. 【뉴델리=UPI】

스탈린 大肅淸삭제
★82년판 蘇대백과사전에

최근 발간된 82년판 표준소련대백과사전에는 독재자 이오시프·스탈린에의해 1백만이상이 처형되고 수백여만명이 노동수용소에서 사망한것으로 믿어지는 1930년대의 대숙청에관한 언급이 모두 삭제됐다고. 【모스크바=聯合】

시험관아기 윤리적
★英國醫藥硏 공표

시험관아기에 관한 실험을 과학적 목적으로 실시하는것은 윤리적으로 용납될수있는 일이라고 영국의 국영의료연구협회(MRC)가 공표.

MRC는 19일 시험관아기에관한 연구는 실험에사용된 태아가 자궁으로 이식되지않고 난자나 정자의 기증자들이 실험에동의한경우엔 허용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MRC는 특별히 채집보존한 정자들이 연구목적을위한것이 아닌경우 정자은행으로부터 함부로 실험목적으로 정자를 꺼내쓰는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라고 덧붙였다. 【런던=AP】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오후8시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원녹용, 생녹용, 길림산 녹용 ★다량확보

보약의 계절에 귀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성심껏 봉사코저 하오니
일차 왕림 상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종합비타민
- 인 삼
- 웅 담
- 산 삼
- 우황청심환
- N[illegible] 일체
- 녹 용
- 사 향
- 홍 [illegible]
- 보 [illegible]
- 중 풍
- 심장병
- 간장병
- 비만증
- 신경통
- 고혈압
- 부인병
- 양기부족
- 위장병

※지방에 계신 분께는 Mail Order 환영합니다.

645 BLOOR ST. W. TORONTO
☎: (416)530-0522, 530-4900

돈만 날린「새마을 가꾸기」

강원 高城 巨津邑 주민11세대

邑추천 建設업자 工事金챙겨 도주

짓다만집 마무리위해 몇백만원씩 빚져

다른 非違로 사표낸 邑長은 "나는 責任없다"

【강원高城이동취재부=方敗俊기자】새마을도시가꾸기 사업에 호응, 읍(邑)에서 추천한 건축업자에게 주택공사를 의뢰했던 주민들이 건축업자가 건축비를 챙겨 달아나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게됐다. 이같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강원高城郡 巨津邑 7里 吳亨燮씨(55·어업)등 11세대로 공사를 마무리짓느라 대부분 5백만~1천만원의 빚을 지고있거나 짓다만 집에서 그냥 살고있다.

이들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새마을도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연장1km의 해안도로가 개설되면서 기존건물이 헐리게되자 주택지로 해안매립지를 평당 4만원~8만원에 불하받았다. 주민들은 개인능력에 따라 집을 지으려 했으나 당시 읍장이던 黃모씨(48)가 세진건설 巨津출장소장 金기열씨(26)에게 공사를 맡기라고 권유, 주민들은 金씨와 평당 32만원~38만원에 공사계약을 맺었다는것.

11세대분 주택건립 공사비는 1억5천만원으로 81년 7월에 착공, 그해 12월에 완공키로 했었다.

그러나 착공2개월부터 건축업자金씨는 공사비가 모자란다는등의 이유로 공사를미루더니 완공약속기간인 작년 12월 주민들로부터 남은공사대금과 은행융자금을 받아내 행방을 감추었다.

주민들에 의하면 당시읍장 黃씨와 邑사무소직원들은 주민들의 인감증명과 도장을받아내 농협융자금 6백만원중 일부를 대신찾아 건축업자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다는것.

吳亨燮씨의 경우 융자금중 1차분 4백19만원을 농협에서 찾아나오다 읍장이 공사비로 업자에게주라는 말을듣고 그대로넘겨주었으며 2차분 1백55만원은 읍사무소직원 黃모씨가 吳씨의 통장과 도장을갖고 吳씨몰래 찾아서 업자에게 넘겨주었다는 주장이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공사비를내고도 공정이 40~50%밖에 안된집을 마무리짓느라 빚을 다시지거나 빚을낼 능력이없는사람들은 짓다가만 집에서 겨울을나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전평34평의 2층건물을 1천1백만원에 계약했던 吳씨의경우 공사비중 8백80만원을 내고도 업자가 달아나는 바람에 공사를 마무리짓느라 별도로 9백만원을 더들여야했고 洪金昌씨(24·巨津邑8里1반)는 공사비 1천1백만원 전액을 주고도 공정이 60%에 그쳐 집을 완성하느라 4백50만원을 별도부담했다.

한편『읍장이 추천한 업자가 달아났으니 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대해 읍장 黃씨는『세진건설이 그런 부실업체인줄 몰랐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만 대답하다 지난해 11월 다른지구의 연립주택건축과관련, 사전에 업자에게 공사내정가를 발설한 비위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제출, 읍장에서물러난 뒤부터는『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있다.

◇읍에서 추천한 건축업자가 건축비를 챙겨 달아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된 巨津읍 해안도로변의 주택들.

오늘 內陸지방 零下날씨

休日 전국에 비 寒溪·大關嶺등 눈 3cm쌓여

◇大關嶺에 小雪눈 21일 하오부터 大關嶺에 눈이 내려2·4cm의 적설량을 보였다. 이 눈때문에 雪嶽山관광을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들이 거북이운행을 하기도했다. 【江陵=聯】

일요일인 21일밤부터 전국적으로 비가내려 光州22·3mm、大田6·4mm、서울·水原4·4mm의 강우량을 보인 가운데 寒溪嶺·大關嶺등 산악지방에는 눈이내려 22일 오전3시 현재 3cm、2·4cm가 쌓였다.

중앙기상대는 22일 날씨는 이날밤부터 차차 개겠으나 차고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23일 상오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淸州 春川등은 영하2도~7도 大田 영하1도~8도 서울 0도~6도등으로 추운날씨가되겠다고내다봤다.

東海 폭풍주의보

중앙기상대는 또 鬱陵島·獨島해상에 폭풍주의보를 발표했다. 예상풍향·풍속은 남서~북서풍 14~18m로 파고는 3~4m.

光州 美문화원에 화염병 날아와

【光州】지난20일밤11시10분부터 15분사이 光州市東區黃金洞80 미문화원 영화관옥상에 화염병이 투척됐으나 경비원들이 즉시 발견, 피해를 면했다.

문화원경비원신고봉씨(51)와 조종호씨(41)에따르면 구내순찰중 「펑」소리가나 달려가보니 화염병이 날아들어와 있어 포말소화기로 불을 껐다는 것이다.

이화염병은 4홉들이 크라운맥주병에 신문지(C일보82년11월20일자)로 심지를 만들어 불을 붙여 놓았다.

경찰은 光州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 범인을 수사중이다. 【聯】

美문화원 放火사건 抗訴審 3회공판

【大邱】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관련피고인 16명에 대한 항소심 3회공판이 大邱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승부장판사)심리로 22일 상오 10시 大邱고법1호법정에서 열렸다.

32명중 17명上告 李·張사건피고인

李哲熙·張玲子부부 어음사기사건관련피고인32명가운데 李·張부부를 비롯, 李圭光피고인, 전조흥은행장 林在洙피고인, 전상업은행장 孔德鍾피고인, 共榮토건사장 邊康雨피고인, 日新제강사장 朱昌均피고인등 모두 17명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天和상업 비서실장 金勇男피고인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경북 達城 낙동강변에도 황새 10여마리 먹이찾아

【大邱】20일 상오 10시30분께 경북 達城郡 玉浦面 新塘里 속칭소맹이앞 洛東江변에서 10여마리의 황새가 먹이를쪼아먹고 있는것을 이마을주민들이 발견했다.

주민들은 이들황새가 충남 甲川 황새와같이 몸통이 회색이고 꼬리부분이 검은 깃털을 달고있으며 다리는 붉은색이어서 수십년전에 보았던 황새와 같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상오9시30분께 신고를 받은 경북도 관계자가 현지에 출동했을때에는 4마리가 확인됐고 22일에는 비가 온탓인지 한마리도 보이지않고 있다. 【聯】

甲川황새 潛跡 5일째 안나타나

【大德】12마리의 황새가 날아와 흥분에 싸였던 충남大德郡九則面 甲川하류에서는 지난17일 1마리의 황새가 독극물에의해 희생된후 22일현재 나머지 황새들이 모두 자취를 감춰 5일째나 나타나지 않고있다.

日 폭력조직加入후 귀국 실탄등 密搬出기도

4명拘束

서울 龍山경찰서는 22일 일본의 폭력조직에 실탄등을 팔려던 韓英敏씨(31·전과6범·서울 麻浦區 鹽里洞1의18) 金俊昊씨(27·전과7범·서울 龍山區 漢江路3街65) 宋時用씨(28·전과9범·서울城北區 石串洞48의15) 申鉉喆씨(30·전과1범·충남 瑞山郡 泰安邑 北門里527)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및 밀항단속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韓씨는 지난 6월18일 일본에건너가 일본폭력단체인 야마구찌(山口)組계열의 다무라(田村)組에 가입한뒤 두목인 다무라씨로부터 권총실탄 5천발을 구해달라는 부탁을받고 귀국, 金씨등을 포섭, 모부대에서 실탄을 빼내려다 군관계자의 신고로 붙잡혔다는 것이다.

金선수遺骸 고향에 오늘 마을뒷산安葬

【東草】22일하오 서울에서 운구돼온 金선수의 유해는고향인 강원高城郡巨津邑盤岩里마을회관에 마련된 빈소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23일상오10시 발인, 동해바다가 보이는 盤岩里산11 마을뒷산에 묻히게된다.

金선수의 빈소에는 21·22일 이틀동안 高城郡협회등 위원회장 崔成圭씨(46)등 2백여명이 찾아와 명복을빌었으며 金亨根강원지사 巨星국교어린이등 각계에서 조위금 60여만원을 보내오기도 했다. 【聯】

金得九선수 영결식

권투委葬엄수 體育勳章추서

金得九선수의 영결식이 22일상오10시 서울中區貞洞 문화체육관에서 한국권투위원회장(葬)으로열렸다.

이날 영결식은 경찰악대의 주악속에 고인에 대한묵념으로시작돼 全斗煥대통령의 조전낭독、한국권투위원회 梁正圭회장의 조사、분향순으로 50분간 거행됐다.

全대통령은 董宗洙 한국권투위원회 부회장이 낭독한 조전에서『이역만리 타국에서 최후까지 선전분투한 金선수의 타계를 국민과함께 애도한다』고 말했다.

한편영결식장에서 金선수에게 李永鎬 체육부차관에의해 체육훈장 백마장이 추서됐다. 金선수의 유해는 로스앤젤레스발서울행 KAL기편으로 21일상오 6시30분 金浦에도착한뒤 順天鄕병원에 마련된 빈소로 옮겨졌었다.

金선수의 어머니 梁順女씨(65)는『공항에서 아들을 나라에바쳐 후회는없다』며 담담해했고 金선수의 약혼녀 李英美양(22)은 金선수의 영정을안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못했다.

◇22일열린 金得九선수의 영결식. 朴鍾八등 동료복서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유해를 운구하고있다.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 「人間市場」
●한국 學園·人脈을 캔다

다이너마이트 터져 막장鑛夫2명死傷

【光州】21일 밤8시30분께 전남和順郡寒泉面平陰里 호남탄좌 1편갱 막장 5백m 지하에서 발파작업을하던 광부 金在三씨(32·和順郡寒泉面寒溪里)가 터지지않은 다이너마이트를 점검하다가 뒤늦게 터지는바람에 숨지고 함께있던 吳治玉씨(35)가 중상을입고 조선大 부속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聯】

開浦·果川아파트投機관련 모두13명拘束

서울開浦·京畿果川지구 아파트투기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22일 孫龍龍씨(33·서울江南區盤浦洞307의2)등 2명을 崔潤鎬씨(42·서울江南區方背2洞541)와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추가구속, 이사건과 관련해 모두13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서울시경과 경기도경은 이날 발표를 통해 2천2백60명중 구속된 13명외에 1천6백69명을 불구속입건하고 2백69명은 계속수사 및 기소중지, 2백명은 무혐의, 83명은 타시도및 국세청 이첩, 23명은 고발 취하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6개월내 전매금지」를 어기고 주공開浦 1차아파트를전매 또는 임대해 고발된 1천5백15명가운데 ▲무혐의 1백71명▲이첩대상 73명▲기소중지등 수사진행중인 1백7명을뺀 나머지 1천1백64명이 주택건설촉진법위반으로 입건됐는데 이중 8명만을 상습투기꾼으로 1천만원까지의 벌금을물도록 검찰에송치하는 한편▲생활이 어려운자로서 일수금불입능력이 없어 전매한 9백75▲자녀취학문제▲직장거리상등의 이유로 전매한것이 확인된 1백81명에 대해서는 자숙유예처분 의견을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고발대상자가운데에는 공무원 1백86명, 철거민3명등 특별분양대상자도 포함되어있다.

收賂혐의 拘束 前영등포 區廳長

속보=치안본부 수사대는 22일전永登浦 구청장 申載學씨(50)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셋방에서 가스中毒 1명死亡 1명重態

【順天】22일 새벽6시30분께 전남順天市德興洞642 임순심여인(33)집 문간방에 세든 양종숙양(17·順天여상2년)이 연탄가스로 숨지고 함께 자던 사촌언니 양미영양(18·順天여상3년)은 順天의료원에 입원 가료중이나 중태이다.

임여인에 따르면 이들은 21일밤9시께 날씨가 추워지자 연탄불을 피우고 잠이 들었다는것. 【聯】

鄭載巴군 保釋신청

1심에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朴尙憲양 피살사건의 鄭載巴피고인(22·仁荷大행정학과3년)의 변호인단은 22일 鄭피고인에대한 보석을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에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보석신청서에서『1·2심을통해 사실심리가끝나고 대법원의 법률심만 남아있는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대학생인 鄭피고인이 학업을계속할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밝혔다.

아스피린의 有害論 정식案件으로 채택 美保健厚生省

美보건후생성장관 리처드·슈웨이커는 지난주 아스피린이 어린이 致死病인 라이·신드롬의 결정적원인이 된다는 주장을 정식안건으로 채택, 보건성이 그연관성을 연구조사할것을 공식 지시했다. 【워싱턴=聯】

5行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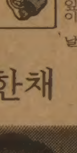
◆서울—釜山항공편 增設

서울—부산간 항공편이 12월2일부터 1시간 간격으로 매일 12회 왕복운항되며 이에따라 사전예약제는 폐지된다.

「適材適所」

江原 道立연어養魚場長 劉瑛玉씨

가족과도 別居한채「연어人生」12년



강원도립연어양어장장 劉瑛玉씨(54·사진·강원三陟郡近德面草堂里)는 연어인생을 산다. 1년열두달 양어장에 매달려 바삐 지내는것은 마찬가지지만 연어가 회귀하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은 그야말로 잔칫날이다.

새벽4시에 일어나 양어장을 둘러보고 三陟 五十川으로 달려가 하룻동안 잡힌 연어로부터 알을채취、현장에서 인공수정을 시킨다. 이어 襄陽 南大川과 高城 北川을들러 같은일을 한다. 인공수정된 알을 싣고 草堂양어장에 돌아오면 밤10시가 넘는다. 알을 수조에 배분한뒤 잠자리에 들지만 역시 편한잠은 오지않는다. 바람결에 가랑잎이 날리면 혹시 수문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돼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손전등을 들고 물소리뿐인 양어장을 한바퀴 돈후에야 맘을 놓는다.

劉씨는 이런생활을 꼭12년간해왔다. 물론 독수공방이다. 가족들은 모두 외지에있어 본의아니게 홀아비가 된셈이다.

처음와본 사람들은 그를두고『물좋고 산좋은곳에산다』고들 말하지만『뭘 모르고들하는말씀이다. 너무외롭고 고생스럽다』. 적재적소(適材適所). 劉씨에게 딱 어울리는 말인것같다. 62년 수산기사가된뒤 20년동안 한계단도승진못했지만『연어 송어와 함께 물소리를들으며 사는게좋다』는 그는 떠날생각이 없단다.

劉씨는 당초엔 연어에 대해선 문외한이었다. 南海수산학교를 나와 어협과 해무청을거쳐 지난64년 三陟郡수산계장으로 부임하면서 처음 연어구경을했다. 백색과 연록색바탕에 검붉은 무늬가찍힌 미끈한 몸매와 앵두알같은 알에반했다. 연어가 母川回歸性을가진 최고급 어라는것도 처음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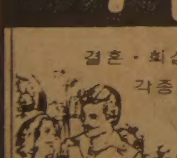
劉씨는 연어에관한 문헌을 구하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녔다.「연어를 주요수산자원으로 만들자」는그의꿈은 66년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三陟邑史直里龍水川에 연어간이부화장을 탄생시켰다.

劉씨는 지난71년 4대양어장장으로 부임한후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있다. 어느새 연어박사가 됐다. 연어와 사느라 부모임종도 못하고 아이들과도 방학이 돼야 얼굴을 겨우 대한다.

『이대로가면 동해안을 몇년안가 연어밭으로 만들수 있을텐데 마땅한 후계자가 나서지 않아 걱정입니다』 채란을 위해 길을 서두르며 털어놓았다. 【三陟=方敗俊기자】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LOEB
CASH "N" CARRY
※ 온타리오주에 10개소의 도매상(토론토에는 3개소)들이 당신의 비즈네스를 위해 성심성의껏 친절 봉사코 있읍니다.
매주 광고전단을 만들어 각 소매상에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원하시는분은 저희 도매상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스페샬품목의 광고전단을 즉시 보내드리겠읍니다.(예 : Allen's Pure Apple Juice 48온스 $13.77 8월16일 ~ 8월28일)
★★★★ 당신의 M.Loeb Cash & Carry ★★★★
3 CONVENIENT TORONTO LOCATIONS
TORONTO 20 Orfus Road Mgr. Dennis Schulz 782-8892
TORONTO 160 Evans Ave. Mgr. Frank Arnone 255-6366
SCARBOROUGH 55 Bertrand Ave. Mgr. Norm Carmichael 752-7292
LONDON 304 Adelaide St. S Mgr. Ernie Kormendi 686-7590
WINDSOR 2629 McDougall St. Mgr. Gary Villemaire 969-9610
SARNIA 135 Water St Mgr. Keith Hood 337-2751
ST CATHERINES 189 Bunting Road Mgr. John Neufeld 684-9581
HAMILTON 256 Gage St. S. Mgr. Mark Hagan 549-7069
BRANTFORD 16 Morton Ave Mgr. John Baker 759-4633
CHATHAM 80 William St. S. Mgr. Peter Antuma 354-3000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광고는 낭비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533-2361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뱅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Eglinton Keele Bathurst Bayview Bloor CHINA HOUSE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弓道 3종목 「金」 눈앞에

男子탁구·水泳 (混泳 개인) 李始恩 銅메달

女탁구、中共과 金싸움、女 농구는 日本눌러

◇熱戰 남북대결 여자탁구 남북대결。한국의 梁英子·尹環美조가 북한의 이영숙·장연옥조를 맞아 열전을 벌이고 있다。【뉴델리21日신문공동취재단=聯】

제9회 아시안게임 4일째

【뉴델리=한국신문공동취재단】한국이 궁도4개종목중 남녀단체、여자등 개인 3개종목에서 선두에 나서 금메달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22일 델리그라운드에서 열린 궁도 마지막날 50m경기에서 여자부의 金珍浩는 3백19점을 기록, 70m 60m 50m의 개인중간합계에서 9백59점을 마크, 북한의 오광순(9백54점)을 5점이나 제치고 선두에 나서 금메달을 눈앞에 바라보게됐다。첫날 中共에 11점차로 뒤졌던 여자단체전에서도 金珍浩 金美英 朴英淑이 1·4·5위를 차지하며 분전, 2천8백33점으로 북한(2천7백94점)을 앞지르고 중간선두에 나서 역시 금메달 가능성이 짙어졌다。

한편 남자단체전에서는 金永雲이 계속 호조를 보여 2천7백14점으로 인도네시아(2천7백7점) 中共(2천7백4점)을 앞질러 금메달이 유력하다。

남녀궁도는 30m종목만을 남겨놓고있다。

◆중간기록

▲여자단체(70、60、50m 중간) ①한국 2833 ②북한 2794 ③중공 2775

▲동개인 ①김진호 959 ②오광순(북한) 954 ③맹파이(중공) 943 ④김미영 940 ⑤박영숙 934

▲남자단체(90、70、50m 중간) ①한국 2714 ②인도네시아 2707 ③중공 2704 ⑤북한 2645

▲동개인 ①마쓰시타(일본) 942 ②야마모토(일본) 940 ③김영운 933

金珍浩、北韓 오광순누르고 先頭나서

남녀단체서도 계속 호조、우승유력해

◇23일 한국경기 (한국시간)

▲축 구 (예선) 한국—이란 (21시30분)
▲남자농구 (예선) 한국—쿠웨이트 (18시30분)
▲남자배구 (예선) 한국—쿠웨이트 (20시)
▲남자테니스 (단체준결승) 한국—인도네시아 (13시30분)
▲여자테니스 (단체준결승) 한국—필리핀 (14시30분)
▲탁 구 남녀개인단·복식 (13시15분)
▲체 조 남자개인전 (13시30분) 여자개인전 (20시30분)
▲골 프 단체및개인전 (10시30분)
▲사이클 4천m개인추발 金性錫 (12시30분) 1천m속도 金永洙 (17시30분) 1천m스프린트 金永洙·崔서길 (19시40분)
▲역 도 67.5kg급 金元春 (18시)
▲사 격 자유소총단체·개인 (12시30분) 尹德夏·[illegible]·權宅烈·金[illegible]永
▲수 영 (19시) 남자배영 2백m [illegible] 남자접영 2백m [illegible] 여자배영 2백m 崔允嬉·崔允姬 여자접영 2백m [illegible] 여자자유형 4백m [illegible] 남자하이다이빙 [illegible]
▲요 트 (18시30분) OK딩기 [illegible] 엔터프라이즈 沈[illegible]

서 李始恩(상명여고)은 5분8초26의 한국신기록을 세우면서 동메달을 차지했으며、한국은 1903점의 북한과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국남자 탁구는 22일 벌어진 결승리그 최종7차전서 말레이지아를 5-0으로 완파、종합전적 5승2패로 동메달을 차지했다。한국남자팀은 21일 日本과 中共에 각각 5-1、0-5로 패했다。

전천후의 여자팀은 中共과 금메달을 걸고 숙명의 한판을 벌인다。

한국여자농구팀은 예선 1차전서 日本을 93-76으로 물리쳤으며 축구대표팀은 남예멘을 3-0으로 완파, 예선D조서 1승을 기록했다。

처음 대회종목으로 채택된 조정·페어 경기서 한국은 22일 中共과 함께 결승에 진출했다。

탁구

▲남자단체결승리그 한국 5-0 말레이지아 (5승2패) 중공 5-1 한국 일본 5-4 북한 한국 5-1 [illegible]
▲6차전 한국 3-0 베트남(5패)

▲5차전 한국 3-2 북한
梁英子 0 (15-21 16-21) 2 이영숙
尹環美 2 (21-16 21-10) 0 정경순
梁英子 1 (21-18 18-21) 2 이영숙
尹環美 2 (21-12 22-20) 1 장연숙
梁英子 2 (21-15 21-17) 1 김경순
▲4전 한국 3-1 일본

사이클

한국사이클이 1백km도로에서 아시안게임 사상 16년만의 금메달을 딴데 이어 제5회 방콕아시안게임 기록을 깼다。한국은 2시간13분36초61로 방콕대회에서 日本이 세운 기록을 앞당겼다。일본은 2시간15분59초로 은메달, 이란은 4km차이로 2시간16분49초로 3위에 입상했다。

수영

▲여자개인혼영 4백m ①이데카(일본) 5분07초79 ②오카(일본) 5분08초09 ③李始恩(한국) 5분08초26
▲남자평영 2백m ①리즈카(일본) 2분25초99 ②(북한) 2분26초63 ③(한국) 2분28초32

▲여자 [illegible] ①히도코(일본) 2분33초78 ②김명숙(북한) 2분45초43 ③권후정(한국) 2분46초22

농구

▲여자1차전 한국 93(38-39 55-37)76 일본

축구

▲예선D조1차전 한국 3(2-0 1-0)0 남예멘

체조

▲여자단체종합 ①중공 193·30점 ②일본 188·95점 ③북한 188·1 ④한국 182·90점

역도

▲56kg급 종합 ①우스대(중공) 267·5kg ②안의명(북한) 267·5kg ③박지환(북한) 257·5kg ⑤이명수(한국) 250kg

◇메달 중간집계 (21일 현재)

	①일본	②중공	③한국	④필리핀	⑤북한	⑥[illegible]	⑦이란
금	6	3	1	1	0	0	0
은	4	4	0	0	3	0	0
동	3	3	2	0	3	1	1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사이클4人의사자들。왼쪽으로부터 金鐵石 張允鎬 李鎭玉 金炳善。【신문공동취재단】

한국에 첫金메달 안겨준 金鐵石등 사이클 4선수

2년전 맺어진 팀메이트

국산사이클 사용 큰意義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사이클의 金鐵石·張允鎬·金炳善·李鎭玉등은 2년전에 맺어진 팀 메이트。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산 사이클인 골드윈을 사용해 우승을 차지, 더욱 의의를 깊게 했다。

慶南大 4년에 재학중인 최연장선수 金鐵石(23)은 『강력한 라이벌인 日本보다 4분59초나 앞서 골인한 것이 무엇보다 통쾌했다』면서 「70km지점에서 시소를 벌이다 앞질렀을때 우승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81년 체코 세계선수권대회와 금년 런던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지난 4월 아시아선수권대회서 우승한바 있다。

李鎭玉(22)은 慶南大 3학년에 재학중이며 지난해 동아사이클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경남金海출신인 金鐵石은 김해건설공고에 입학하면서 사이클을 탔으며 게임운영이 노련하다。張允鎬(22)는 강원도 양양고를 졸업하고 起亞産業에、金炳善(22)은 울산태생으로 東洋나일론에 재직중이다。

◇尹環美가 여자탁구 남북대결서 승리를 마무리지은후 코칭 스태프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신문공동취재단】

南北대결에서 勝利 이끈 탁구 金浣(남)·尹環美(여)

金、포핸드공격이 위력발휘

尹、찬스에강한 공격형新人

한국 남자탁구의 주전공격수로 올라선 金浣(22·제일합섬)은 북한과의 대결에서 3게임을 모두 승리한데 이어 中共과의 제1번 단식서 세계랭킹 6위 야오쥐(郭躍華)를 꺾어 탁구관계자들을 놀라게했다。

백핸드 스매싱과 드라이브 등이 주무기이며 결정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던 포핸드공격을 보완, 지난 8월 제2회 서울국제오픈탁구대회때부터 위력을 발휘했다。

신진공고 3년때부터 두각을 나타낸 金은 국가대표경력 4년으로 서울오픈대회 단체우승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고향은 麗水이며 홀어머니 劉愛利(59)씨의 2남3녀중 막내。

尹環美(18·서울신탁은행)는 북한 타도의 견인차。尹은 부상으로 빠진 李壽子 대신 국가대표로 기용됐던 신인。뛰어난 커트스트로크로 찬스를 만든뒤 단번에 강타로 상대수비를 분쇄하는 펜홀더의 중진공격형이다。

서울여상을 졸업, 실업초년병인 尹은 지난 6월 상비군평가전서 우승하면서 국가대표로 발탁됐다。충남 천원군 입장면 출신 장리에서 농업을 하는 尹李華(44)씨의 2남2녀중 장녀。【이상 신문공동취재단】

뉴델리소식

두차례 國際전화

◆…동경에서 열린 국제경기인회의에 참가키위해 21일새벽 뉴델리를 떠난 鄭周永 체육회장은 21일밤과 22일새벽 6시30분 두차례나 선수단에 국제전화를 걸어 한국선수단의 동정과 경기전적·일정·전망등을 자세히 물어보고 처리사항을 지시했다。

한국의초여름날씨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있는 뉴델리의 날씨는 최저 섭씨15도에서 최고26도 사이인데 이곳 현지주민들은 털스웨터와 목도리를두른등 완전히 겨울차림。

이곳 날씨는 한국의 초여름 정도인데 인도인들은 아침 저녁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춥다고 떨며 외출을 꺼리는 실정。

祝電받고사기충천

◆…21일 사이클 1백km 단체 도로 경기에서 우승,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선수단은 22일 김정례 인도대사로부터 全斗煥대통령의 축전을 전달받고 사기충천。

金鐵柱단장은 全대통령의 전문을 낭독하고 사이클선수단과 수영의 李始恩(동메달)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했다。

남자승리가 부담

◆…여자탁구단체전 남북대결서 승리한후 金忠(?)여자팀코치는 『당초 3ー1정도로 쉽게 이길줄 알았는데 전날 남자팀이 먼저 이긴것이 부담이됐다』고 말하고 『북한선수들의 실력이 예상보다 강했다』고。梁英子는 고교3년생이고 尹環美는 실업초년생인데 게임을 잘 이끌어 주었다고 말했다。

남북대결이 벌어진 20일 저녁에는 鄭周永대한체육회장과 韓國日報 회장, 李世基국회의원 등 많은 관계인사들이 나와 교민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성원을 보냈다。

◆…또 여자단체전이 열린 21일에는 崔元碩 대한탁구협회장이 이곳에 도착 막 첫날공연에서 ...

韓國무용단첫공연

◆…韓國리틀무용단은 20일밤 제9회 아시안게임의 문화예술행사인 아시아드예술제 첫날공연을 가졌다。

이번 예술제에는 16개국이 출연했는데 한국은 첫날공연에서 전통민속무용을 화려하게 펼쳐 印度국민과 각국선수단의 갈채를 받았다。趙然?단장은 印度상공부재기구에 구호성금 2천4백60달러를 전달했다。

치열한 응원전도

◆…이번 대회 구기종목중 첫 남북대결이 벌어진 남북탁구의 스포츠홀에는 20·21양일간 많은 교포와 공관원과 운동복차림의 선수들을 동원, 꽹과리와 징·북등을 두드리며 응원을 벌였고 21일 한국에 뒤지자 응원단을 철수시키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20일 밤에 하자마자 체육관으로 달려와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요구르트가장人氣

◆…5천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숙식하고있는 선수촌에서는 하루10만kg의 식품과 과일들이 소비되고 있는데 3백종의 메뉴중 요구르트가 가장 인기를 끄는 품목중의 하나。

인도정부는 선수촌 주방시설에 1백46만달러를 들였는데 이 주방은 한꺼번에 2천명에게 인도요리·서구및 중국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하루에 10만kg의 식품과 과일 소비

현지 주민들 털스웨터에 겨울 차림

北韓 예상보다강해 한때 고전 겪어

中共女체조 아시안게임 첫10점만점

중공 1·2위에

◆…체조여자개인종합에서 중공의 첸·융얀과 우지아니가 1、2위를 휩쓸어 아시아체조의 강호임을 과시했다。

우지아니는 평균대에서 이번대회의 최초이자 아시아선수권대회 사상 최초로 10점만점을 기록했고 마루와 안마에서도 9·9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조마에서 난이도가 낮은 경기를 함으로써 9점에 그쳐 총점 78·05로 아깝게 은메달에 머물렀다。【이상신문공동취재단】

◇체조 개인전에 출전한 한국의 李貞[illegible]가 평균대에서 도약연기를 보이고 있다。【뉴델리22日신문공동취재단=聯】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74>

지금까지의 줄거리

수철이 수지 수인이 (그때까지 식구들 사이에선 오목이란 애칭으로 통함) 삼남매는 6·25때 아버지를 잃고 1·4후퇴때 어머니와 함께 수원근교 외가로 피난을 간다。

그곳에서 행세하는 부농인 외가엔 많은 친척들이 피난 내려와 북적이는데 그들의 어머니는 남편을 무참히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나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돌연한 애정의 결핍때문인지 수지와 오목이는 병적인 굶주림에 시달린다。특히 다섯살의 오목이는 온종일 먹어도 허기가 져서 수지의 먹을것까지 빼앗아먹어 여러사람의 눈총을 받는다。

수지는 일곱살의 어린나이답지않게 이런 동생에게 잘 양보하지만 속으론 오목이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앙큼한 생각을 키운다。마침내 수지는 오목이를 계획적으로 장거리까지 데리고나가 마지막피난의 북새통에 슬그머니 손을 놓치고 돌아온다。그때 수지는 오목이가 아무리 갖고싶어해도 안주던 표주박모양의 작은 노리개를 오목이 손에 쥐어준다。

이렇게 동생을 고의로 버리고온 수지는 까무라칠듯이 울고불고 동생을 찾아 식구들을 감쪽같이 속인다。그러나 식구들 역시 오목이를 찾아나설 새없이 마지막 피난의 대열을 따를수밖에없다。국도에서 어머니까지 기총소사를 맞아 죽자 수지는 속으로 「천벌이다」라고 자기가 한짓에 대한 죄책감에 떤다。

수복후 아버지의 유산은 이재에 밝은 수철이가 잘관리해 수지는 유복한 소녀시절을 보내고 오목이는 「오누이의 집」이란 고아원에서 자란다。

한때 고아원을 순례하며 자선을 베푸는걸 취미로 삼던 수지는 「오누이의 집」에서 오목이 (吳木伊)란 고아를 만나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만 긴가민가할뿐 증거는 없다。

「오누이의 집」이 없어진후 오목이의 행방도 묘연해지고 수지의 자선취미도 인재라는 대학동기와의 연애로 시들해진다。

인재의 군복무기간과 맞추느라 대학원까지 진학해가면서 인재와 졸업시기를 맞춘 수지건만 졸업식날 올케의 중매로 기욱이란 집안좋고 전도유망한 청년과 맞선을 보고 마음이 달라진다。시골출신의 인재는 졸업과 동시에 취직은 됐지만 그이상의 끝발이 있어보이진 않는다。

한편 수지의 냉담으로 좌절해진 인재는 버스간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된 동네처녀 오목이를 하숙방으로 끌어들여 범하는 일을 저지른다。식모처럼 남의집 살이를 하고있던 오목이는 인재를 마음으로부터 좋아하고 따른다。그러나 오목이가 인재하고 같이있는 장면을 본 수지는 불같은 질투심에서 오목이가 고아라는걸 인재한테 폭로한다。그때 마침 오목이는 수지가 20년전 버린 동생이란 결정적인 증거로 은표주박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있었지만 수지는 오목이가 동생으로보다는 연적으로만 보인다。

상처받은 오목이는 인재의 아기를 밴채 같은 고아원 출신의 일환이란 보험회사원에게로 가고, 인재를 이갈칠만 시키고 곧 사랑이 식은 수지는 거리낌없이 기욱과 결혼한다。

달을 채우지못한 첫아들때문에 일환이와 오목이의 생활은 날로 비참해지고 수지는 귀부인처럼 유복하고 기품있는 생활에도 무료해져 다시 자선사업에 열을 올린다。

기욱이 중동쪽으로 출장을 간동안 보일러를 손보면서 유기사란 건강하고 조야한 보일러공에게 수지는 야릇한 감정을 품는다。유기사는 수지에게 중동에 취업할수있기를 청탁하고 공사가 끝난후엔 아내까지 보내 재차 청탁을 한다。그의 아내가 오목임에 수지는 어쩔줄을 모른다。

제2회 메시아 대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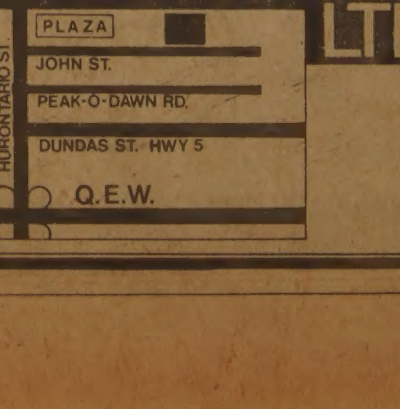
지휘 : 박재훈 박사
독창자 : 이주연(S) 양경자(M.S), 조영호(T) 신경욱(B))
합창 : 토론토 한인합창단 (찬조 : 디트로이트 한인합창단, 연합교회 성가대(150명))
오케스트라 • 주로 토론토 심포니 멤버

때 : 1982년12월 4일(토) 저녁 8 시
곳 : 메시홀(토론토)
■(12월 6일(월)은 디트로이트 오케스트라홀에서 연주)
입장권 : $12(A), $11(B), $8(C)
구입처 : ● 합창단원들과
☎222－4662(MRS. 김)
222－2901(MR 리)

주최 : 토론토 한인합창단이사회
후원 : 토론토 교역자협의회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현

HoneyHome BakeShop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잌과
각종 파티용
샌드위치 TRAY
주문 받습니다.

☎ : 961—9780 MRS. 장
☎ : 536—1908(R)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조용하고 아담한 분위기
교통편리한 장소에서!
. 여러분의
연말·연시 파티는 Macho 레스토랑에서

■메뉴 : 한식, 서양요리 각종주류
■주소 : 4035 GORDON BAKER RD. SCAR.

498-1300, 496-2196

MACHO 레스토랑 이 해 창

금번 한인볼링협회는 제2회 코리언 컵 볼링대회와
회원및 교민의 크리스마스겸 송년잔치를 아래와 같이 가지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코리언 컵 볼링대회

일 시 : 1982년 12월4일(토) 정오12시
장 소 : PRO 10 PIN BOWL 877 WILSON AVE.
(BETWEEN KEELE×DUFFERIN)
종 목 : ●개인전(남·녀) ●부부및 남녀혼합전 ●단체전 6인1조(남4·녀2)
참가비 : 개인전 $7·부부및 혼합전 $10·단체전 $50(6인1조·남4·녀2)
시 상 : 개인전—챔피언(챔피언컵및 애뉴얼 트로피)및 남1·2·3등, 녀 1·2·3등
핸디캡—남 1·2·3·4·5등, 녀 1·2·3등
혼합부부전—우승(우승컵및 애뉴얼트로피)및 2·3등
단체전—우승및 준우승
하이싱글및 장려상—(남·녀 1명)
부 상 : 챔피언—카스테레오(하이파이하우스, 박명호)
여자1등—볼링볼(윌슨프로텐 핀 볼)
부부전1등—전기후라이팬(미도파·장추신)
핸디캡—남1등(쌀1포·동양식품 함태민) 녀1등(쌀1포·동양식품 함태민)
단체전—우승(DY국수 1BOX·DY총판 오기환)

크리스마스 및 송년잔치

일 시 : 1982년 12월18일(토) 저녁7시30분…새벽1시
장 소 : ALBION COMMUNITY CENTRE(1485 ALBION RD×KIPLING AVE.)
회 비 : $20(1인당) 식사·드링크 포함

파—티프로그램

●행운경품 : ◇대형벽시계(영리무역·이영현)
◇다운힐 스키부츠(브랜드스포츠·이건영)
◇고급전화기(TORCH FIRE CANADA·송인문)
◇내셔날전기밥솥(삼복식품·김규석)
◇DY국수 1BOX(DY총판·오기환)
◇라면(동양식품·함태민)
◇카셑테잎(종교서관·김명준)
*이밖에 협회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상품이 있음.
●쇼 노래와 경음악(5인조 밴드출연)
●땐스 파—티 (MR. 박)249—3039(경기)
※연락처 : (MR. 오)622—0224 (MR. 조)661—3124

재캐나다 한인볼링협회 · KOREAN-CANADIAN BOWLING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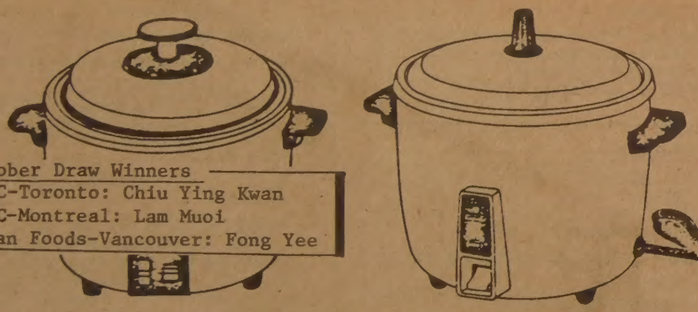
주최 : 재캐나다한인볼링협회
후원 : 한 국 일 보 사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SANYO 자동·보온밥통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October Draw Winners
JFCC-Toronto: Chiu Ying Kwan
JFCC-Montreal: Lam Muoi
Asian Foods-Vancouver: Fong Yee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켙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켙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É MONTREAL
● ASIAN FOODS—VANCOUVER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성
〈R〉 (416)633—7892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

⊙Gift shop: 취급품목—선물, 문방구, 카드, 장난감등. 작년매상 $230,000, 이윤 40%이상, 바쁜 쇼핑몰안에 있으며 일요일은 휴업. Try best offer!
⊙Donuts shop: 주매상 $3,500, 리스10년+10년, 설비값만 $80,000이상 됨. 타 사업관계로 팔고저 함. 전망좋음. Asking $99,000
⊙Variety Store: 주매상 $5,500, 윗층의 살림집도 Rent가능. Asking $55,000
⊙Hamburger Shop: 주매상 $2,300~$2,500, Rent $700/mo, 리스6년+5년 Full basement, 40 Seats, 주인의 건강문제로 팔고저 함. $35,000 Downpayment! Asking $65,900
⊙Tudk Shop: 주매상 $3,500 Rent $450/mo, 리스2년+5년, 짧은시간 높은이윤. Asking $69,900
⊙Tuck Shop: 주매상 $5,000이상, Rent $750/mo, 리스5년+5년 짧은시간 Asking $109,000.
★위의 두 Tuck Shop은 같은 3동의 고층아파트속에 있으며 두 가게를 동시에 인수할 수 있는 가족이나 두 가족에 아주 적합함.
⊙Supermarket: 주매상 $30,000, 리스7년+10년, Store size 8,700s.f.+7,000s.f.의 지하실, 좋은장비, 경쟁이 없으며 아주좋은 동네의 고층아파트들 속에 있음. 앞으로도 6동의 고층아파트와 6동의 고층사무실이 더 들어설 계획임. 주인 은퇴함. 좋은 전망 기대됨. Asking $299,000

★타 사업체나 주택에 관하여도 문의하여 주십시오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효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상하수도,부엌, 난방, 온돌방
시설및 고장 수리.
전화 : 532-8662, 535-7878 류동훈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홍콩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757-6334 Mr.최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 인수, 인계 일절 처리.
Inven 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 Mr. 탐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밤일할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밤12시-아침7시까지. 1주에 50시간.
전화 : 884-2747

도넛숍에서 파트타임 일하실 여자분 구함.
오후7시~밤12시(일~금요일) Victoria Pk. & Steeles
전화 : 499-4459, 299-1431

칸추리스타일 도넛숍에서 주말에 일하실 파트타임 헬퍼 구함.(Keele & Finch 지역)
전화 : 630-9413

레스토랑 맡아서 경영하실분 구함.
전화: 859-4554

그라나다 식당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923-3060

그로서리 스토아 메니저 구함
약간의 보증금 요함. 젊은 부부 환영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5-9270

경험있는 헬퍼 구함.
Mississauga Lorne Park 지역
전화 : 278-8101

주방 여자 헬퍼 구함.(50세 미만)
전화 : 537-0432

가정일 돌봐주실분 구함.
전화 : 762-1572

도넛츠가게에서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861-1521, 222-3877

혼자 독립하여 성공할수 있는 최대의 기회!
활동적인 사람에게는 더많은 수입을 올릴수 있음
연락처 : 463-0798

◉경험있는 호텔 청소하실분 구함(11PM~7AM)
◉경험있는 수퍼바이저 약간명 구함.
전화 : 630-2450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윈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풀타임으로 가게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
경험있는분 환영, Islington 지역.
전화 : 622-2643

오리엔탈·팔래스
한식요리사 1명, 일본식요리사 1명 구함.
전화 : 533-3545

금·토·일요일 주말헬퍼 구함
Islington & Rexdale
전화 : 742-0800 Mr. 리

동반자 구함
약회사 메니저임. 독일태생. 캐나다에서 교육 받았음.
22세~35세 정도되는 여성으로써, 교육받고, 세련되고,
진실된 한국여성을 만나고 싶음. 친구나 결혼용의가 있는분.
전화 : 1-727-6490 (Gert) 콜렉트·콜로 걸어주기 바람.

구 직

베이비시터 원하시는 분 연락 바랍니다.
전화 : 920-0930 Mrs.김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1622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송공문화협회	444-3658

개인지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전화: 243-7752(저녁7시 이후)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윈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매 매

Bakery 매매 또는 동업자
구합니다.
전화 : 961-9780 오전10시~오후7시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81년도 Dodge 스테이숀 왜곤〉
4기통. 25,000Km. $ 7,500.00
전화 : 535-4441 Mr.김

Luckey Doller Store, 비지니스 재료와 빌딩, 가족이 운영하기 좋음. Town에 있고 바쁜 Highway 옆이고 살림집 있음. 저희는 토론토 북쪽에 여러가지 스토아가 또 있읍니다.
◉아스킹: $135,000+스탁. ROYAL TRUST REAL ESTATE.
전화: (416)691-6111(토론토)
·(705)325-6193 Degraw Rben(Red)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도넛숍 매매.
서쪽끝에 빠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주매상: $3,500이상 보장. 리스: 13년. 아스킹: $119,000
주인은 레바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팔아야함.
도나스 만드는 것은 주인이 추레인 시킴.
전화: 596-8170(B), 447-4585(R) Andrew Lee.

잘 꾸며진 약국 매매(토론토). 3,000Sq.ft.
우체국 달림. 온타리오 약국면허를 필요로 함.
전화 : 781-2560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116 Dawes Rd.(Victoria Pk)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부동산 투자. Detached 벽돌사무실 빌딩.
7,800 sq. fit. 년매상: $50,000정도.
Hollywood Real Estate Ltd. 746-4360 John Ritacca.

성업중인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7,000
아스킹: $69,000+스탁. 렌트: $650
오타와지역. 전화 : (613)-238-3837

Baskin Robin 아이스크림 가게 매매.
Metro 바로 북쪽. 좋은 매상.
자세한 문의는 JOE DI LILLO(조·디·릴로)
전화 : 746-4360
Hollywood Real Estate Ltd.

▲스토아와 아파트 매매.
아스킹 : $97,000. 2층 벽돌건물. Garage와 파킹.
$47,500 몰개지. 12% 끝 1985. 바쁘고 좋은 지역.
▲Motel(23개 방). Burlington.코너에 위치하고
넓이는 120'X250'. 잘 꾸며지고, 좋은 컨디션.
아스킹 $400,000.
DORIS BURDA 763-5555
R. Cholkan & Co. Ltd.

오픈하지 1주일된 새가게 매매.
New Plaza, New Sub, Div.
Call Guneva Real Estate 749-6677 Mr. 조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1 Bd Room 아파트, 스카보로지역
(Markham & Lawrence) 리스 83년7월까지
전화 : 438-4537(오후4시~8시) Mr. 한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콘도미니움아파트 렌트. 3Bed Rm.(Jane & Eglinton지역)
◉월$700(다 포함됨) 실내수영장·사우나·체육관 있음
전화: 535-8801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밍 크

밍크 털공장 직매점 (Canada Mink Centre)
주소 : 712 Bloor St. W.
전화 : 535-7878, 532-8662 류동훈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초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하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비·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DEAR MAIL 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